

# 서울의 청년커뮤니티 작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듣는연구소



I · SEOUL · U  
너와 나의 서울

##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서울의 청년커뮤니티 작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및  
무중력지대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09.

연구기관명 듣는연구소

연구원 송하진, 안수정

# 차례

06	I. 서론
0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2. 연구개요
13	3. 연구방법 및 과정
13	4. 용어 사용
16	II. 들어가며 : 청년커뮤니티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
17	1. 개인화 시대의 커뮤니티 이해
21	2. 청년을 이해하기
29	3. 커뮤니티 이해하기

34	<b>III. 연구 분석</b>
35	1. 사업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관찰
37	2.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지원서 분석
46	3. 심층인터뷰 분석 : 청년커뮤니티의 형성을 이끄는 맥락들
62	4. 그룹인터뷰 분석 : ‘청년커뮤니티 활동’의 주요 맥락들
87	5. 전문가 검토의견
90	<b>IV. 종합 : 연구 시사점 및 제도적 지원 방향제언</b>
91	1. 청년커뮤니티 연구 시사점
99	2. 청년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의 방향제언
104	3. 연구의 한계
106	<b>참고문헌</b>

# 차례

## 표

- 11 [표 1] 연구 대상 : 청년커뮤니티지원 사업에 선발된 청년커뮤니티
- 24 [표 2] 청년 마음의 레짐(regimes)(김홍중, 2015에서 정리)
- 30 [표 3] 선행연구에서의 커뮤니티 구성요소
- 35 [표 5] 사전인터뷰 진행 일정 및 기관 명
- 38 [표 6] 지원서 분석 항목
- 46 [표 7] 심층인터뷰 참여자 정보
- 62 [표 8] 그룹인터뷰 참여자 정보
- 63 [표 9] 그룹인터뷰 흐름과 질문
- 64 [표 10] 그룹인터뷰 결과 : 주요 주제와 관련 인용
- 87 [표 11] 전통공동체와 청년커뮤니티 비교
- 88 [표 12] 전문가 검토 명단

## 그림

- 26 [그림 1] 한국 사회 청년담론 전개(이우창, 2016에서 정리)
- 39 [그림 2] 커뮤니티 활동 분야
- 40 [그림 3] 자치구별 커뮤니티 활동지역
- 40 [그림 4] 대표자 성별 분포
- 41 [그림 5] 구성원 나이분포
- 41 [그림 6] 초기 구성원의 관계
- 43 [그림 7] 커뮤니티 모임 장소
- 43 [그림 8] 커뮤니티 모임 주기
- 44 [그림 9] 주요활동
- 44 [그림 10] 지원금 외에 필요 지원
- 45 [그림 11] 지원금 활용
- 45 [그림 12] 향후 계획
- 61 [그림 13] 청년의 커뮤니티-되기 경로 맵핑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개요
3. 연구방법 및 과정
4. 용어 사용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필요성

### 가.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의 지속과 성장 그리고 고민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는 2013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를 기반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7년 간 청년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청년참’은 청년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소규모 지원사업으로서 6년간 청년허브의 대표사업으로 지속되었다. 청년참을 거쳐 간 청년커뮤니티는 13년부터 19년까지 약 1,700여 개(중복포함)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커뮤니티의 숫자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청년참 사업도 이어질 것이지만, 청년허브 개관 이후 늘어나고 있는 서울 곳곳의 청년지원 기관들 역시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의 커뮤니티 형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대로 충분한가’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유사한 사업의 반복과 상호복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재정 중심의 지원 외에 청년을 위한 또 다른 필요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제공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진다.

이 고민은 제공자가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당사자인 청년의 필요와 활동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현재 제공되는 지원이 충분한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종합적인 이해가 있다면 그 다음 발걸음을 옮겨가기 쉬울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 커뮤니티지원사업의 담당자들 역시 현재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청년과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면, 더 나은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설계하여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사업의 목적이 커뮤니티가 많이 모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비용의 50% 이상을 모임비로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비용으로 쓰시라고 하는데 사업 취지를 잘 설명하고 있지만 딜레마다. 지원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100만원을 프로젝트 비용으로 쓰고자하는 분들이 있고... 그럼 수요는 이건가? 자꾸 그냥 모이라고만 요구하고 있나? 라는 고민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 프로젝트 비용이라면 100만원 짜리 활(청년활)이 되니까, 작년에 고민이 많았다.” — 2019. 06. 청년허브 담당자 인터뷰

“아쉬웠던 것은 이분들이 지원을 받는거잖아요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건데, 금전적인 지원 그것이 다 여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1차적으로는 이분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성취든 미성취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어쨌든 유의미한.. 유의미한 거니까 족적을 남기며 해나가는 것이 일차적 목표겠지만 일하는 매니저의 입장에서는 나는 뭐하는 거지 여기서, 돈만(지원하면 되나)... 아쉬움이 있었어요” — 2019. 05. 무중력지대 00 매니저 인터뷰 중

### 나. 개인화 된 시대, 청년의 삶에서 커뮤니티는 어떤 의미인가?

의외로 청년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담당자들 중에는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신도 몇 개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몇몇은 자신은 ‘시간이 생겨도 집에 있는 것이 좋다’거나 ‘바쁘고 자기 할 일도 많은 시대에 이렇게 많은 커뮤니티가 지원한다는 사실이 매번 놀랍다’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럴 때 마다 나오는 단어는 ‘개인주의’였다. 개인주의화 된 청년, 더 나아가 고립되기를 선택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쳐주었던 우리시대 청년의 모습이다.

20~30대 청년 절반 “나는 ‘혼밥’, ‘혼술’ 즐기는 ‘나홀로족’” (경향신문, 2016. 09. 20)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한국 20대 청년 4명 중 3명 ‘혼자 논다’ (한국 외식신문, 2019. 05. 24)

인간관계 피로감 ‘관태기’에 빠진 청년들 (동아일보, 2017. 04. 03)

이러한 모습이 청년의 전체를 대변하는 상황이라면 공공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미달되고 참여자를 찾기 힘들어야 할 것 같은데 ‘청년참’은 매년 수백여 커뮤니티의 참여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의 청년거점 공간인 무중력지대 등이 진

행하는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 역시 참여자가 몰리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경험의 간극에서 커뮤니티가 운영되는 과정에 대한 궁금증과는 다른 질문이 생성되었다. 커뮤니티가 존재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라고도 하고, 개인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맨 앞에서 있다는 청년들은 충분히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도 왜, 여전히 모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가정, 직장 등 전통적인 커뮤니티를 넘어 제3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거라고 본다 ...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우정을 나누고, 동료를 만들고,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공유하며 숙련하는 커뮤니티들이 늘어나고 활성화 될 것이다.” — 2018. 09. 22. 안연정 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

청년허브는 2018년 2기 청년허브 비전을 통해 ‘생산력’을 키워드로 청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청년이 그러한 활동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반으로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재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삶과 커뮤니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미 만들어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과 다른 맥락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커뮤니티와 접촉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2) 목적

본 연구는 ‘서울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지원한 청년 커뮤니티들의 ‘커뮤니티-하기’(doing community)의 과정을 탐색한다. 커뮤니티-하기는 고정된 이미지나 정의된 개념으로서 ‘커뮤니티’를 규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회와 개인의 다양한 맥락이 교차하고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개인 간의 역동에 의해 만들어져가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sup>1</sup> ‘커뮤니티-하기’는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형성과 커뮤니티 활동의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인화된 시대에 왜 수많은 청년들이 커뮤니티에 접속하게 되는지의 과정을 탐색하며,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려한다. 이를 위한 핵심 연구 질문

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청년의 커뮤니티 형성’ : 서울의 청년들은 ‘왜’ 커뮤니티 활동을 할까?
- ‘청년의 커뮤니티 활동’ : 서울의 청년들은 ‘어떻게’ 커뮤니티 활동을 할까?
-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지원조직 및 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본 연구의 제목은 ‘서울의 청년커뮤니티의 작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청년에 관한 연구,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많이 수행되었지만, 청년커뮤니티를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다. 탐색적 연구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적을 때 진행하는 기초 연구로서 서울의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청년커뮤니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향후의 연구나 실행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

‘커뮤니티-하기’의 개념은 김선기(2016)가 세대 수행성 개념을 바탕으로 ‘청년-하기’의 이론화를 진행했던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 청년을 단일한 집단으로서 이해하는 세대론적 구분이나 특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 개개인이 갖는 다의적인 삶의 맥락을 통해 수행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듯이 ‘커뮤니티’도 개념적 정의(definition)로 포착되지 않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과정으로 드러나는 ‘공동체화’라는 수행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 2. 연구개요

### (1) 제목

- 서울의 청년 커뮤니티의 작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서울특별시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커뮤니티를 중심으로)

### (2) 연구주체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수행기관 : 듣는연구소

### (3) 연구기간

- 2019. 05~09

### (4) 연구대상

- 본 연구의 대상은 2019년 서울의 청년지원조직의 커뮤니티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커뮤니티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기관과 사업은 아래 표와 같다.

기관명	사업명	대상그룹	커뮤니티 수(개)	
청년허브	청년참	상반기 선발팀 만	202	
	대방	왓에버프로젝트	선발팀 전체	10
	도봉	청년정거장	선발팀 전체	8
무중력지대	성북	청년시민발견	모임트랙 만	10
	양천	꿈양꿈양	선발팀 전체	9
	G밸리	지음	관심형, 문제해결형 만	14
청년교류공간	이음프로젝트	전체	3	

[표1] 연구 대상 : 청년커뮤니티지원 사업에 선발된 청년커뮤니티

- 표에서도 보듯 이 연구의 대상은 7개의 기관의 서로 다른 지원사업에 지원한 청년커뮤니티 중 지원이 결정된 곳들이다. 대상 커뮤니티의 숫자는 총 256개이고 그 중 청년참여 202개로 가장 많다. 연구 과정에서 대상에 지속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각 기관 사업에 선발된 팀이 주 연구 대상이 되었다.
- 연구 대상이 되는 256개의 커뮤니티를 크게 청년커뮤니티라고 묶을 수 있지만 지원사업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지원자들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들이 청년커뮤니티를 대표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일한 청년커뮤니티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정확히 청년커뮤니티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나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제한적 대상으로 ‘청년커뮤니티’를 보다 엄밀하게 정의하기 보다는 ‘청년커뮤니티’란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작동을 살펴려는 의도를 가지고 각 케이스를 포괄하여 귀납적 방식으로 청년커뮤니티에 대해 접근하였다.

#### (5) 연구내용

-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커뮤니티의 주제, 구성, 운영방식 등의 경향 확인
- 청년커뮤니티의 결성 계기, 활동의 목적, 욕구 및 지원의 필요 등 청년커뮤니티에 관한 내용적 이해
- 서울시 청년지원기관 등의 청년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사업적, 제도적 시사점 도출

#### (6) 연구의의

- 청년커뮤니티에 대한 이해 확장을 위해 공공의 차원에서 진행하는 연구
- 서울시 청년지원조직인 청년허브와 무중력지대 등 서울시 청년 지원조직 간 협력을 통한 연구
- 청년커뮤니티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수요자의 목소리를 담아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이해관계자들이 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 부분을 고려

### 3. 연구방법 및 과정

#### (1) 질적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청년커뮤니티에 관한 질적 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확인된 내용을 다시 연역적 방법으로 확인하고 해석하는 혼합적 방식의 질적 연구로 진행함
- 질적 정보는 연구 대상이 되는 청년커뮤니티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작성한 지원서 및 청년커뮤니티를 직접 만나 진행한 심층인터뷰, 그룹 인터뷰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음

#### (2) 연구과정

- 연구 대상 및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이해 : 문헌연구, 청년허브 및 무중력시대 커뮤니티지원사업 담당자 인터뷰,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 선발과정 관찰
- 조사설계 : 청년커뮤니티 작동을 밝히기 위한 연구 대상 조사 계획 수립
- 사전인터뷰 : 청년지원기관의 청년지원사업 담당자 등 인터뷰 진행
- 지원서 분석 :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지원한 청년커뮤니티의 지원서 분석
- 심층인터뷰 : 청년커뮤니티 참여 청년 1:1 심층인터뷰 진행
- 그룹인터뷰 : 청년커뮤니티 참여 커뮤니티 대표자 그룹인터뷰 진행
- 연구 결과 분석 : 수집된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커뮤니티의 작동 과정 도출
- 검증 및 적용방안 검토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 청년커뮤니티에 관한 이해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의 방향성 및 아이디어 제안

## 4. 용어 사용

### (1) 커뮤니티와 공동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모두 ‘청년커뮤니티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연구 대상을 지칭하거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할 때 ‘공동체’보다는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본문 내 공동체라고 표기했을 때는 타 문헌의 인용과정에서 원문이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 한 경우 및 학술용어 (예) 탈-전통공동체, 공동체화 등)를 사용하였을 때이다.

### (2)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서울시 청년중간지원조직에서 청년활력의 증진, 청년들의 커뮤니티경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공모 형 지원사업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앞서 제시한 <표1>과 같이 6개 기관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각 사업은 최소 2인에서 3인으로 구성되어 활동 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의 기준에 따라 50만원 100만원까지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활동 공간이나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에서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로 규정하고, 활동지역은 서울특별시를 근거로 해야 하며, 지원기관에 따라 서울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하기도 한다.

### (3) 청년커뮤니티의 작동

현대의 커뮤니티 연구는 ‘커뮤니티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정의 보다는 ‘언제 커뮤니티라고 느끼는가’, ‘무엇이 커뮤니티 됨을 유지시켜 주는가’ 등 수행적 성격의 ‘공동체 화’ 과정에 더 주목하고 있다.<sup>2</sup> 본 연구에서도 ‘청년커뮤니티는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삶의 맥락이 다양하게 교차하여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형성의 의미) 또 ‘만들어져가고 있음’(과정의 의미)을 드러내려는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 ‘작동’은 움직임의 원리 혹은 움직임 그 자체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원인, 커뮤니티의 과정적 성격에 대한 확인 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청년커뮤니티의 작동’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

## 2

“하나의 공동체는 단지 그 구성원들이 특정한 속성을 공유한다는 단순한 사실에 근거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는 오히려 오로지 ‘공동체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항구적인 수행 속에 존재한다.” (하르무트 로자, 라스 게르텐바흐, 헤닝 라옥스, 다비트 슈트레커, 『공동체의 이론들』, 곽노완, 한상원(역), 2010; 47p) 하르무트 로자 등은 최근의 공동체 이론의 관심은 명백히 “안정적으로 구조화된 형태”로서의 공동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화’의 과정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도 공동체를 정의하고, 무엇이 공동체이고 무엇이 아니다라는 관점 보다는 무엇이 청년의 공동체 되기를 추동하는지, 유지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지 그 경로와 역동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 II. 들어가며 : 청년커뮤니티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

1. 개인화 시대의 커뮤니티 이해
2. 청년을 이해하기
3. 커뮤니티 이해하기

## 1. 개인화 시대의 커뮤니티 이해

서울의 청년커뮤니티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사회의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시작하는 것이 너무 거창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청년도, 커뮤니티도 역사 속에서 어떤 고정된 개념으로 머물러 있었던 적은 없었다. (김홍중, 2015; 하르무트 로자 외, 2010) 이 개념들은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거나 소멸하기도 하고, 경험적으로 새로운 경향이나 변화가 포착되기도 한다. 단정적으로 말해 이 시대에 대한 이해와 별개로 청년커뮤니티라는 개념을 분절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청년커뮤니티가 속해 있는 한국사회라는 공간, 현대라는 시간 좌표 속에서 청년 커뮤니티의 위상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청년커뮤니티의 작동에 대해 탐구하기 전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 관한 이해를 우선하고자 한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제안한 위험사회이론과 이에 따른 개인화 테제들은 현대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에, 본 연구는 위험사회이론과 개인화 테제들의 기반 위에서 청년과 커뮤니티를 이해하고자 한다.

### 가. 위험사회

울리히 벡은 1986년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를 향하여』를 통해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명명했다. 위험사회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위험이 상존하는 사회다. 이 위험은 국소적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위험이 언제 발생할지 특정할 수도 없다(위험이 언제나 잠재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위험의 발생은 곧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의미한다. 벡은 대표적인 예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그리고 핵발전 사고나 핵무기로 인한 피해 등을 든다. 벡이 위험사회를 발표한 1986년은 체르노빌 핵 발전 사고가 일어난 해였다. 이 때문인지 위험사회가 가지는 탈지역성(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로 끝나지 않음), 계산 불가능성(피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측정이나 예상이 불가함), 보상 불가능성(피해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음)이라는 특징들이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와 닿았고, 위험사회는 일약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더불어 벡은 전통적으로 안전에 대한 위협은 가족이나 이웃, 마을과 같은 커뮤니티가 함께 지는 몫이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위협을 감수해야 할 주체가 커뮤니티가 아닌 개인이 되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 나. 개인화

“사회계층적 속박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정된 준거틀로서의 가족이 아니다. 개인으로서 그 또는 그녀 자신이 생활세계에서 사회적인 것의 재생산 단위가 된다.”

— 울리히 벡

20세기 중반 서구사회가 과학기술의 발전, 복지 및 사회제도 정비를 통해 복지사회로 진입한 이후 개인은 구속받아왔던 타고난 생활 질서로부터 이탈과 분리가 가능해졌다. 더 이상 개인이 낯 때부터 소속된 가족과 공동체에 얽매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공동체로서 가족, 이웃 등의 관계망은 약화되고 개인은 스스로의 삶의 책임자라는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벡은 이 과정을 ‘개인화’라 명명한다. 그는 더 이상 계급이나 가족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그 또는 그녀 자신이 생활세계에서 사회적인 것의 재생산 단위가 된다”고 말한다.<sup>3</sup> 개인화는 개개인이 새로운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는 개인이 등장하였지만(해방적 측면) 동시에 자율적 선택이 주는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제도나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제도화된 측면) 모순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포괄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 이상 가문이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여전히 집안 간의 결합이라는 의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사랑이 전제가 되는 ‘두 사람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여겨진

---

### 3

울리히 벡, 『위험사회』,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214p

다. (해방적 측면)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분가라는 것이 일반화 되면서 두 사람이 살 집을 마련하는 문제는 결혼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이들이 결혼하며 꿈꾸었던 삶이 어떤 모양이냐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자본에 의해 살 집이 정해지고, 때로는 제도의 지원에 따라 삶의 방식이 결정된다. (제도화된 측면)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주택을 저렴하게 얻기 위해 장거리 출퇴근을 불사하며 도시 외곽에 제공되는 공공주택을 이용하거나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어 그것을 갚으며 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신혼부부에게 내어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내기위해 결혼식을 하기 전에 혼인 신고부터 하고 집을 얻어 함께 사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 다. ‘초 위험사회’,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가 진행되는 한국사회

“지진, 쓰나미 그런 것만이 재난이 아니라, 우리 상황이 재난 그 자체라고!” (영화, 엑시트)

한국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사회가 ‘초 위험사회’라고 말한다(이하준, 2014). 초 위험사회란 무엇인가? 초 위험사회는 복지 및 사회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글로벌적인 위협에도 노출되어 다층적으로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현상을 드러내는 용어이다. 기후변화, 핵 위협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실업, 비정규직, 양극화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위험은 물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참사 수준의 안전사고 등은 보다 가까워서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위협으로 우리사회에 자리 잡아있다.

2019년 개봉해 인기를 모은 한국영화 <엑시트>에는 백수 상태인 두 청년이 만나 대화하다 지진을 안내하는 재난경보 문자를 받는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지진, 쓰나미 그런 것만이 재난이 아니라, 우리 상황이 재난 그 자체라고!” 한국사회가 자연재해 뿐아니라 개개인의 생존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있는 초 위험사회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생각했을 때 우리사회가 사회복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뒤쳐져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사회학자 김덕영(2014)은 ‘환원근대’라는 표현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장과정에서 복지와 안전이 등한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한국사회의 근대화가 인간다운 삶 보다 경제 성장에 우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설명했듯 근대에는 개인에게 미치는 전통적 공동체, 결속의 영향이 약화되었고 개인이 자신의 생애를 주체적으로 개척하고, 선택하여 결정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가족도 전통적 공동체의 대표적 형태로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과정을 우선하느라 부족한 복지의 영역을 가족이 담당하고 해결해 왔고 김덕영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족이 개인적 삶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보루이자 안전망”<sup>4</sup>이 되었다.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이 짊어져야 할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력하게 남아있다. 한국사회는 백이 말했던 “개인으로서 그 또는 그녀 자신이 생활세계에서 사회적인 것의 재생산 단위가 된다.”<sup>5</sup>라는 사회적 현실이 아직 낯선 것이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개인화는 ‘개인주의가 없는 개인화’다(심영희, 2011). 객관적-구조적인 사회적 개인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내가 선택하며 만들어가는 주체적 삶은 닫혀있다. 전통적 가족의 상을 쫓아 취업-결혼-출산이 목표가 되는 표준적 삶의 경로를 따라야 하는 압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 라. 소결

청년커뮤니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현대 사회의 시대적 맥락과 이에 따라 등장한 개인화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한 것은 앞서도 밝혔듯이 청년도 커뮤니티도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에 따라 청년의 삶도, 그 삶의 일부로서의 커뮤니티 활동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

### 4

김덕영, 『환원근대』, 도서출판 길, 2014, 190p

### 5

올리히 벡, 『위험사회』, 214p

이해 없이 청년이나 청년커뮤니티 이해에 접근했을 때 마치 이 시대의 특징이 청년세대의 특징인 것처럼 혹은, 청년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인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위험사회와 개인화의 양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년세대 뿐 만 아니라 청소년, 장년세대, 노인세대에게도 있다. 보다 개인적인 배경의 조건들이 그 영향에 대한 속도와 정도를 다르게 만들 수 있지만 마치 청년만이 개인화된 사회에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은 커뮤니티에 관심이 없고 혼자 지내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지역이나 마을 활동에서는 청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분업화된 구조를 통해 누군가는 주거지에 남아 주변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전통적 형태의 가정과 혼자서 생계를 감당해 내며 늦은 시간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1인가구가 마을 활동,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몸을 반으로 가르지 않고서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나’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나’가 공존하는 길을 쉽게 모색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 없이 쉽게 ‘요즘 청년들은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없다.’는 진단은 무의미 하다.

김수정(2019)은 개인화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이 한국사회에 균질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그 변화의 양태를 탐색하고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청년커뮤니티의 작동’이라는 이름으로 추적해 나가자 하는 것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사회적 상황이 주는 불안과 불확실성, 위험이 청년의 삶에는 어떤 영향이었는지 그 영향력 아래서 커뮤니티활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인 것이다.

## 2. 청년을 이해하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청년은 서울시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지원한 청년들

이다. 커뮤니티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이 기준은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가 근거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을 정의하는 나이인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보다 최저 나이는 4세 높고 최고 나이는 10세 높다. 나이 폭은 더 넓지만 어린 연령의 나이 대는 포함하지 않아 확장된 범위라 부르는 애매하다. 서울시의 다른 청년지원 정책인 청년수당의 경우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청년사업인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가 기준이다. 사업에 따라서 청년의 기준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청년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저기에서는 제외되기도 하는 것이다.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나뉘지는 것도 아니라면, 과연 청년이란 어떤 존재들인가. 앞서 청년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위험사회와 개인화 이론을 통해 현대 사회 그리고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적, 사회적 관점들을 검토하면서 본 연구가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고자 한다. 다행히도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되고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대 이후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사회가 청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 비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 (1) 세대론을 통해 본 청년

청년 혹은 청춘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발명된 것으로 여겨진다(Galland, 2011; 김홍중 2015에서 재인용). 김홍중(2015)은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19C후반에 서구 문명으로부터 수입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청년들은 당시 밀려들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적 문명을 만들어 당시의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기대되었다. 이는 해방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80년대 후반까지 변함없는 청년상으로 우리사회에 자리매김하였다. 청년은 ‘젊은 사자들’로서 사회변혁 주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전파, 발전시키는 주체였으며 민주화운동의 기수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일

찍이 산업현장에 뛰어들었던 청년들에게도 역시 수출 역군, 외화벌이의 선두에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주체로 기대되었던 것은 다르지 않다.

이우창은 ‘헬조선 담론의 기원’(2016)에서 이와 같은 청년 담론의 흐름을 짚어내고 있다. 그는 청년에게 우호적이었던 청년 담론이 민주화 이후로는 청년을 문제시하는 정서로 역전되었다고 말한다. 민주화 이후 청년은 역사 주체로서의 역할을 잃고 소비적 주체로서 대중의 부정적 인식 속에 위치 지어졌으며, 이후 386세대가 얻었던 정치적 기회를 청년 전반에 대한 무능과 연결 짓게 되었다. 88만원 세대는 결정적으로 청년이 사회의 문제적 주체로 비춰지게 된 계기이다. 그는 그 이후로는 청년은 더 이상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호명되지 못하고 진보 혹은 보수의 정치적 이권다툼 속에서 자신들의 지지층으로 청년을 포섭하기 위한 담론투쟁 속에서 소비되었을 뿐이라고 정리한다.

담론투쟁이라 표현되는 것은 언론과 미디어에 의해 주도된바가 크다. ‘삼포세대’, ‘N포세대’, ‘춧불세대’, ‘달관세대’ 등 청년을 규정하기 위한 다양한 세대 담론이 기사를 통해, 영상을 통해 전파되었다. 김선기(2016)는 2010년 이후 언론의 세대담론을 분석하며 이들의 청년세대담론은 ‘청년세대를 계도나 책임의 대상이 되는 ‘비주체’로 그리거나 ‘청년다움’을 갖춘 ‘주체’로서만 소환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결핍된 존재, 바뀌어야 할 존재로서 청년은 문제를 가졌으나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며 ‘청년세대가 누구인가?’를 정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의 전제가 존재하고 있다.

김홍중(2015)는 청년을 생존주의 세대로 특징 짓는다. 김홍중은 ‘마음’ 즉 “사회적 실천들을 발생시키며, 그 실천을 통해 작동(생산, 표현, 사용, 소통)하며, 실천의 효과들을 통해 항상적으로 재구성되는, 인지적/정서적/의지적 행위능력의 원천”(김홍중, 2014)에 주목한다. 그가 보는 21세기 한국의 청년의 마음에는 ‘생존에 대한 불안’, ‘서바이벌을 향한 과열된 욕망’,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존재의 가능성을 계발하려는 집요한 노력’이 요동치고 있다. (김홍중, 2015) 그는 이 마음. 청년의 행위의 원천이 되는 이 역동을 ‘생존주의’라 명명하며 한국사회의 청년이 공유하는 집합심리라 말한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하나같이 생존주의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들 안에는 생존주의에 저항하는 ‘공존주의’와 ‘독존주의’ 혹은 아예 생존의 경쟁에서 이탈해 버리는 ‘탈존주의’성향이 드러나기도 한다.

**청년의 반응**

생존주의	탈존주의	공존주의	독존주의
생존에 대한 불안이라는 기조 감정과 서바이벌을 향한 과열된 욕망,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신 존재의 가능성들을 전략적으로 계발하려는 집요한 계산으로 특징지어지는 독특한, 마음의 역동	생존주의로부터의 과격한 이탈의 운동. 가혹한 생존경쟁의 지속되는 압력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채 도태되어가는 행위자들이 체험하는 ‘마음의 부서짐’(heartbreak)의 결과물	생존주의적 삶의 형식의 시대적 전환에 문제 제기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마음가짐. 공(共)은 타인들과의 공동체를 구현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며, 공적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고자 하는 태도	생존 투쟁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승리했거나 (아마도 부모의 도움으로) 그런 투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면제된 자들이 생존 경쟁의 괴로움과 처절함을 회피하여 구성된, 자족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사회적인 ‘자유주의적’ 삶의 형식

[표2] 청년 마음의 레짐(regimes) (김홍중, 2015에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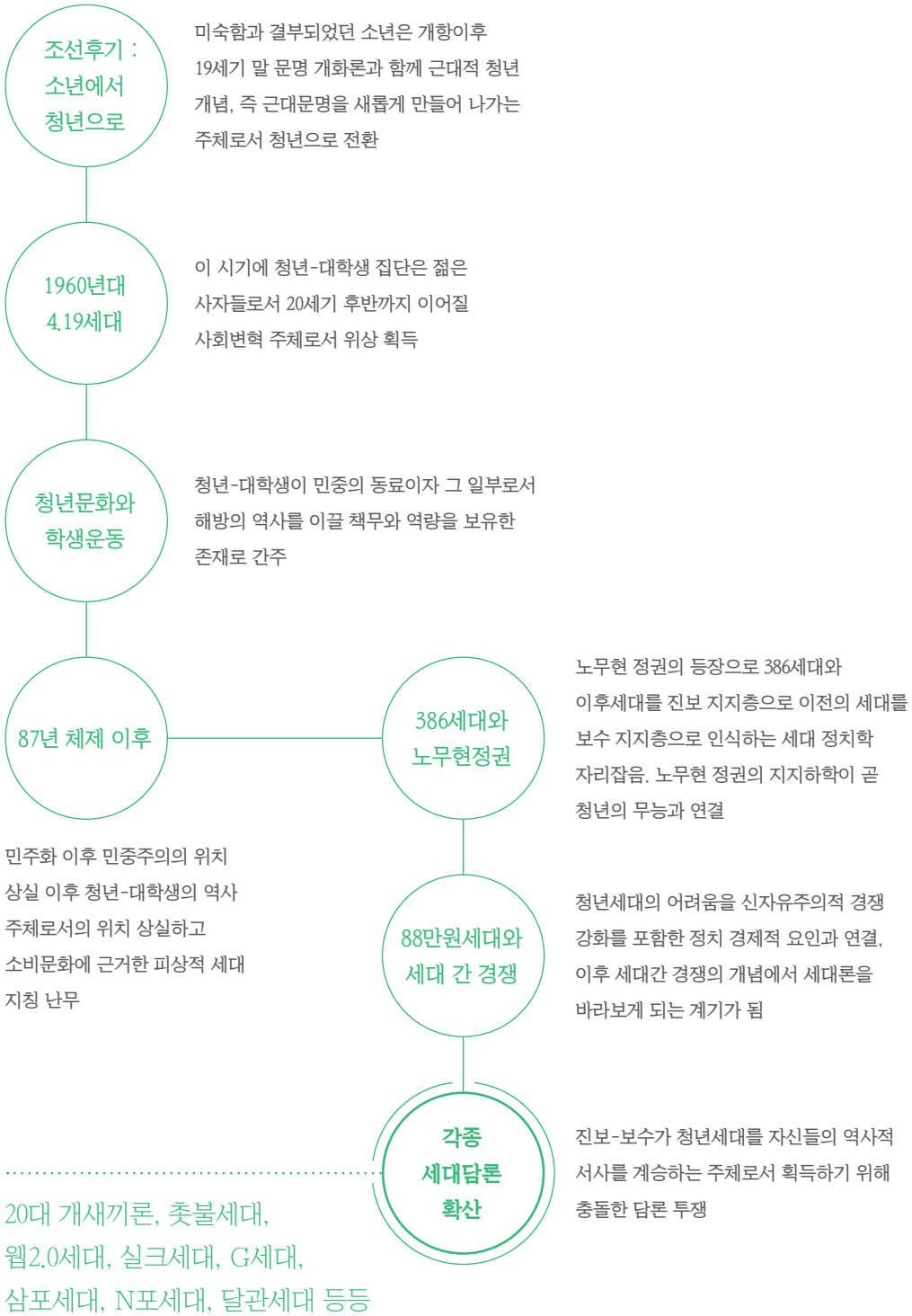
한편 김영과 황정미(2013)은 이행기 청년들의 심층면접결과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현실을 취업과 교육/훈련 사이를 오가는 ‘요요 이행’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했다. 그들은 청년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퍼져나가는 양상이 아니라 ‘한정된 진로 안에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한다. 청년이 가진 부족한 자원과 사회적 제도의 부재는 선택할 수 있는 삶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선택 해야만 하는 압박으로 다가오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다름이 아니라 결론짓는다.

김홍중의 연구에서 청년은 생존의 목적을 위해, 경쟁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주체로서 공동체 의식이나 커뮤니티의 형성 노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일부 그러한 사회와 구조에 질문을 제기하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의식적 주체들이 공존주의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영과 황정미

의 연구 속에서 청년들은 길어지는 이행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힘들며, 미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그릴 수 없어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될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고 진단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속 청년은 시대적 환경과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를 활용하며 살고 있지만 결국 놓여있는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극복의 과정은 경쟁적이고 자기 착취적인 모습을 띄기도 한다.

또 김선기(2016)등은 세대론을 통해 청년을 확인하려는 작업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도 한다. 일부 ‘청년’에 관한 연구가 연령/출생 코호트로서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의 연령대를 나누어 그들을 살펴보려는 시도들이 있으며, 이러한 시도들이 청년 세대라 불리는 집단 내의 계급, 젠더, 신분, 정치 성향, 개인차 등 다양한 삶의 조건과 배경을 동질적으로 묶어버린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시대별로 호명되는 청년의 이미지는 다르고, 청년 세대의 담론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청년세대에 지워지고 있는 이미지는 경쟁적, 자기 착취적 모습이 부각되어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호명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세대론으로 청년을 해석하는 것은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조건과 배경을 ‘청년세대’라는 기호아래 동질적으로 환원시킨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1] 한국 사회 청년담론 전개 (이우창, 2016에서 정리)

## (2) 이행기 주체로서 청년

최근에는 위와 같은 세대론적 시각의 한계를 인식하고 ‘청년’이라는 존재 혹은 그 시기를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청년을 ‘성인기 이행’의 주체로서 바라보는 관점도 등장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아넷(Arnett)은 ‘emerging adulthood’라는 개념을 제기했다. 우리말로 ‘발현성인기’로 번역되는 이 시기는 청소년기가 끝난 이후 성인기의 과업으로 여겨지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결혼, 출산 등의 수행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아넷은 발현성인기라는 기간이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지나는 시기에 일반화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신념(beliefs)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 말한다. 첫째, 결혼이나 출산의 과업 이전에 경제적 능력을 갖추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믿음. 둘째, 결혼이 가족 간의 결합 보다는 개인적 행복의 조건으로 여겨지면서 낭만적 사랑이 중요해지고 이와 같은 대상을 탐색하는 기간이 늘어남. 셋째, 일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중요해 지고 이를 맞춰가기 위한 탐색, 취업, 이직 등의 과정과 기간이 필요하게 됨. 넷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기간이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시기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안선영, 김희진, 박한준, 김태령, 2011) 서구와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 네 번째 신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흔히 성인의 지표로 여겨지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시기도 유예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의 청년 정책은 청년기를 ‘이행기’로 정의하는 관점 속에 수립되었다. 청년문제를 ‘이행기 청년의 사회진입 지체와 세대 내 불평등 확대’로 정의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사회진입 보장, 청년 기본권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민수, 김병권, 김선기, 신윤정, 임경지, 2018) 이와 같은 관점은 청년을 동일한 필요를 가진 단일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진입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주체로서 다양한 욕구가 해결되어야 할 다차원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앞서 청년의 세대론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서 확인했던 세대 내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이행기를 전통적 사회가 추구하는 취업-결혼-육아라는 표준적

삶의 이행에 가뒤통지 않고 비 표준화된 다양한 선택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확장된 이해를 가져가고 있기도 하다. 이행기의 제도 지원이 취업, 결혼을 지원하고 이후 재생산의 단위로서 가족을 구성하는데 맞춰져 있는 것은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제로 이어지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소결

본 연구는 기존에 다양한 세대론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에 관한 세대 담론이 ‘문제로서의 청년’을 부각시키면서 사회가 규정하는 표준화된 삶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던져왔음을 발견하였다. 연구는 세대적 구분에 기반 한 청년이해 보다는 개인화된 사회적 배경에서 삶의 맥락과 방향은 탈표준화되고 있지만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규정하는 표준화된 삶의 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진다. 청년들은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여 구성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겪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경향성이 단지 약자로서 청년의 위치 혹은 능력부족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이나 모순이 아니라 생애 주기상 ‘그러한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한’ 탐색 기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려 한다. 삶의 맥락에 따라 이러한 기간은 보다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시기로 활용되기도 하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삶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실험과 시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시기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되도록 이러한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삶의 맥락을 가진 존재로서 청년을 바라보려하고 그러한 다면적 특성이 ‘커뮤니티-하기’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 3. 커뮤니티 이해하기

커뮤니티는 시대를 반영해 변화해 온 개념이다. 과거 지배적 지위를 차지했던 가족이나 마을과 같은 개념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커뮤니티가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무엇을 혹은 어디까지를 커뮤니티라고 이야기 할 것인가 역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다. (하르무트 로자 외, 2010; 김형주, 2014) ‘청년커뮤니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커뮤니티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커뮤니티 개념을 추적하고,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커뮤니티의 모습들도 확인하고자 한다.

#### (1) 전통적 커뮤니티의 개념 및 구성요소

커뮤니티 개념의 불명확성은 여러 연구자들의 커뮤니티 정의에 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힐러리(1955)는 94개 문헌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적인 요소를 탐색했다. 수 많은 정의들이 중복적으로 공유하는 공통요소는 크게 일정한 지리적 영역,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도 일정한 지역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사람들의 집단(김성배, 2011), 일정한 지리적 경계 안에 살면서 주민들 상호 간에,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 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곽현근, 2012), 심리적 유대감이나 공동의식을 가진 일정한 지역을 공유하는 집단(전대욱 외, 2012), 공동의식, 유대감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지리적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여관현, 2013), 인접한 지리적 영역을 기반으로 동질적인 사회구성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이은지, 최현선 2015) 등을 공동체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커뮤니티 개념을 이루는 공통적인 요소는 힐러리(1955)가 제안한 일정한 지리적 영역, 공동의 유대, 상호작용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요소들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저자

커뮤니티의 구성요소

힐러리(1955)	일정한 지리적 영역, 공동의 유대, 사회적 상호작용
김성배(2011)	일정한 지역, 상호작용, 공존하는 사람들의 집단
곽현근(2012)	일정한 지리적 경계, 사회 및 심리적 유대를 지닌 집단
전대욱 외(2012)	심리적 유대감, 공동의식, 일정한 지역
여관현(2013)	공동의식, 유대감, 지리적 공간
이은지, 최현선(2015)	인접한 지리적 영역, 동질적인 사회구성원

[표 3] 선행연구에서의 커뮤니티 구성요소

특히, 지리적 인접성 및 일정한 지리적 영역 등 지역적·장소적 의미는 이른바 ‘전통적인 커뮤니티’의 개념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전통적인 커뮤니티(traditional community)’는 근린지역 중심의 커뮤니티(가족, 마을)라는 의미에서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탈-전통적 공동체(posttraditional community)’와 구분된다. 퇴니스(1887)가 제안한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 community)의 개념처럼 전통적인 커뮤니티는 구성원의 의지, 선택과 무관하게 지리적·장소적 기반에 근거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결합한 집단으로 동질적인 사회구성원들로 구성된 폐쇄적인 지역사회를 칭한다. 덧붙여, 공동의 목표, 공동의 도덕과 신념이 구성원 간의 집단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원리로 작용 한다(김형주 외, 2014).

(2) 탈-전통적 커뮤니티의 등장

퇴니스의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 community)의 개념 정립 이후에도 커뮤니티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거두어 진 적이 없었다. 근대화와 개인화의 물결은 커뮤니티의 결속관계를 약화시켰다. 하르무트 로자 등(2010)은 ‘공동체에 대한 사유는 전통적 사회유대가 의미를 상실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퇴니스가 공동체와 사회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도 전통적 공동체의 삶이 약화되어 그 자리를 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이 대체하고 있음을 파악한 것이었고 그 이후로 사회적 삶의 양식이 더 확장되어 가면서 공동체적 삶의 양식은 약화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되곤 했

다. 이는 20세기 중반 이 사회에 공동체가 존재하는가를 묻는 ‘공동체 가능성(Community plausibility)’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김미영, 2015). 결국 전통적 커뮤니티 존재에 대한 의심과 커뮤니티 존재에 대한 재확인 과정에서 ‘탈-전통적 커뮤니티’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가족, 마을 등 전통적인 커뮤니티의 원형으로 간주 되는 지리적 경계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체되었다. 개별적 주체들은 생존을 위해 감수해야 할 개인적 위험을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다시 불안한 사회 속에서 개인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처지를 나누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감정적 결속, 자기실현과 자율성에 근거한 자신을 찾는 과정(Henning 2006 ; 하르무트 로자 외, 2010에서 재인용)을 요구한다. 사회의 변화가 전통 커뮤니티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해소되어야 하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필요가 발생하고 있고, 내용과 형식이 다른 탈-전통적 커뮤니티가 등장해 커뮤니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 (3) 탈-전통적 커뮤니티의 특성 및 유형

유수진 등(2019)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커뮤니티 경험으로서 ‘주거공동체’를 분석해 청년들이 이러한 커뮤니티를 찾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 온전한 자신을 찾는 과정, 개개인의 자기실현이라는 다양한 개인적 동기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커뮤니티에 속함 혹은 형성함을 통해, 불안이 가속화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개인이 느끼는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김미영(2015)은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변화한 시대적 맥락에 따라 전통적인 공동체와 달리 현대사회에 등장한 공동체가 갖는 특성과 의미에 주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기존의 공동체들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체되었다. 전통적인 공동체의 구성요소의 주요 특성인 ‘지역성’이라는 구성요소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물리적 경계를 기반으로 기계적으로 규정되고 부여된 관계는 점차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전통사회에서는 공통의



생활공간을 공유하며 생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대감,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관계는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친밀함’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김형주 외(2014)는 현대적 커뮤니티는 다원성,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의 커뮤니티는 공동의 유대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며 구성되고, 명확하게 규정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현대의 커뮤니티는 전통사회에서 주목한 혈연, 지리적 인접함이란 특성과 달리 참여하는 사람들 간 상호 주관적으로 공유된 가치에 따라 형성되며, 이는 개개인의 개인적 속성에 기반 한 가치를 형성하고 공유한다(호네프, 1993 ; 하르무트 로자 외 2017에서 재인용). 이에, 현대의 공동체는 동일성이 아닌 차이, 확실성이 아닌 유연성, 닫힌 것이 아닌 열린 것을 특징으로 한다(김미영, 2015).

이상의 현대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검토한 최근의 연구를 통해 현대 커뮤니티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김혜경, 2017 ; 유수진 외, 2019 ; 이현재, 2015 ; 윤명희, 2007).

첫째, 개인화 시대에 현대적 커뮤니티는 친밀함과 우정을 기반으로 모임이나 집단을 형성한다(김혜경, 2017). 이들은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의 기반이자 작동기제로서 우정을 주목한다(Ray Pahl 외 2010, Delanty, 2010 ; 김미영, 2015에서 재인용). 불안한 사회에 놓여있는 개인의 맥락 속에서 우정, 친밀함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공통의 문화적 계기에 기반 한 정서적(취향) 커뮤니티의 등장이다(김미영, 2015; 히츨러 등, 2008; 하르무트로자 외, 2010에서 재인용). 이들은 구성원들의 밀접함이나 공통의 가치 확신을 위해서보다는 유사한 생활스타일이나 공유되는 소비행위, 미적 표현방식이 커뮤니티 발생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셋째, SNS 및 미디어에 기반 한 네트워크 공동체의 출현이다. 현재의 사회관계가 장소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미디어는 공동체 형성 과정의 도구로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는 창구로 활용된다(윤명희, 2007). 즉 새로운 소속과 정체성이 기반이 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는 통로로서 SNS 및 미디어가 활용되

고 있으며, 이는 근접성 없는 공동체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김미영, 2015).

마지막으로, 탈-전통적 커뮤니티는 원가족과 다른 상호작용에 기반 한 돌봄 필요의 충족, 민주적인 의사소통이며(김혜경, 2017) 서로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식(유수진 외, 2019)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 (4) 소결

커뮤니티는 불변의 개념이 아니며, 시대적 맥락에 따라 사람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변화해왔다. 여전히 지역 기반의 ‘더불어 살기’를 강조한 마을 공동체 등 전통적 커뮤니티의 맥락이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판단할 때 현대사회의 청년커뮤니티는 가족, 마을 등 전통적 공동체의 형태와 목적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대 이후 개인이 삶의 근거이자 단위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고, 커뮤니티도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삶의 방식에 따른 선택에 따라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탈-전통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III.

## 연구 분석

1. 사업 담당자 인터뷰 및 참여관찰
2.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지원서 분석
3. 심층인터뷰 분석 : 청년커뮤니티의  
형성을 이끄는 맥락들
4. 그룹인터뷰 분석 : ‘청년커뮤니티  
활동’의 주요 맥락들
5. 전문가 검토의견

# 1. 사업 담당자 인터뷰 및 참여관찰

## (1) 인터뷰 및 참여관찰 개요

담당자 인터뷰는 청년지원사업의 목적과 과정을 이해하고,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청년 커뮤니티의 경향,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각 지원기관의 ‘커뮤니티 매니저’역할에 대한 고민 등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각 기관이 운영 중인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소개와 지원하는 청년커뮤니티의 특징, 커뮤니티 사업 담당자가 생각하는 청년커뮤니티 특징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인터뷰는 동의하에 녹음하고 전사하여 연구 과정 중 자료로 사용되었다.

참여관찰은 청년창업 사업의 상호인터뷰 및 무중력지대 양천의 면접 심사 과정에 참여해 진행했다. 관찰은 심사에 참여하는 청년커뮤니티 및 심사자의 동의하에 진행하였으며 별도의 녹음이나 촬영 없이 연구자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했다.

서면인터뷰는 연구의 초기 과정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담당자들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 피드백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료의 전송과 수집은 이메일을 통해 진행했다.

일정	기관명	비고
2019.04.21	무중력지대 대방	인터뷰
2019.04.30	무중력지대 양천	면접심사 과정 참여 관찰
2019.05.09-13	청년허브	상호인터뷰 과정 참여 관찰
2019.05.15	무중력지대 성북	인터뷰
2019.05.15	무중력지대 G밸리	인터뷰
2019.06.25	청년허브	인터뷰
2019.07.02	무중력지대 도봉	인터뷰
2019.07.02	청년교류공간	인터뷰
2019.07.07-12	전 기관	서면 인터뷰

[표 5] 사전인터뷰 진행 일정 및 기관 명

## (2) 결과 요약

### 가. 심사과정의 참관을 통해 알게 된 것

- 커뮤니티 활동 추구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할 체계를 마련함  
: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커뮤니티들의 주된 걱정은 커뮤니티 내부의 위계형성, 커뮤니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등 개인 부담의 증가가 있었음. 커뮤니티 형성 단계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서로 합의하는 팀들도 있었고 합의된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커뮤니티들이 있었음
- 모임의 지속가능 조건에 ‘결과물의 기록’, ‘결과물의 산출’ 등 작은 성취에 대한 언급이 잦음  
: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많다.작업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 고민이다.”  
“우리끼리 놀고 먹고 이렇게 끝나는게 아니라, 허브를 키울 수도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리고 우리의 변화를 알려주고 싶다.”  
“우리콘텐츠를 전달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아웃풋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된다.”
- 여성들이 대표자로 심사에 참여하고, 여성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  
: 관찰한 심사 과정에 참여한 원인 대부분이 여성이었음. 전체 모임 참가 비중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확인이 필요하고 원인에 대한 탐색도 필요함을 확인

### 나. 인터뷰(대면, 서면)를 통해 알게 된 것

- 청년허브와 무중력지대 등의 청년지원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 청년커뮤니티 경험이 청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로 사업을 진행
  - 청년허브 : 광역단위의 대규모 사업으로 각 커뮤니티들이 이루는 개별적 성취보다 낮은 문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 가치의 유지가 관심임
  - 무중력지대 : 각 위탁기관의 성격에 따라 지원사업 성격이 다르지만 권역이나 자치구 단위의 지역적 가치를 중시하며 개별 커뮤니티의 성취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청년교류공간 : 청년활동의 지역 간 교류라는 사업 성격으로 인해 서울이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전국단위의 청년커뮤니티들이 모이고 있어 직접 비교가 어려움

- 현장의 사업 운영자들은 현재의 커뮤니티 지원사업 발전을 위해 실제 청년커뮤니티가 추구하는 목적, 니즈 등에 대해 가지는 질문이 있음
  - 공통점 : 우리를 통해 활동하는 커뮤니티들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 청년허브 : 청년들이 프로젝트성 활동을 가지고 청년참여 참여하는 것은 ‘실제경향의 반영인가, 공모지원이라는 과정 혹은 예산 사용 구조상의 문제 때문인가?’라는 질문을 가짐
  - 무중력지대 : 청년 커뮤니티지원사업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은 ‘왜 무중력지대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가?’ 사업수행과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깊이 관계 맺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짐
-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하는 이유, 방식 등이 전통적 커뮤니티 개념과는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특징 들을 언급함
  - “이 사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아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모이길 원하는 것 같다. 혼자 있으려는 아싸(아웃사이더) 느낌의 사람들도 뭘 하든 사진 찍고 영상을 남기고 공유하고 퍼뜨리려 한다.”

## 2.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지원서 분석

청년커뮤니티 지원서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청년커뮤니티의 활동 경향을 파악했다. 지원서는 연구의 대상인 6개 기관의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의 지원서를 대상으로 했으며 각 기관별 지원서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동일한 질문을 사용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청년참여의 지원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원서에서 양적으로 표기되지 않는 질적 자료의 분석을 위한 질문도 생성하여 연구자들이 지원서를 읽고 해당내용을 입력한 자료도 있다.

질문은 청년 커뮤니티 기본정보 - 커뮤니티 형성 과정 - 커뮤니티의 기반(시간, 장소, 내용) - 필요자원 - 향후 계획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1) 개요

-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지원서 593개(취합) 중 합격팀 256건의 지원서 분석했다.
- 각 기관별 지원서 항목 취합 후, 30개의 분석항목 선정 후 분석했다. 질적 분석은 전반적인 청년커뮤니티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본 보고서에는 그 중 양적으로 표현한 일부 내용에 대해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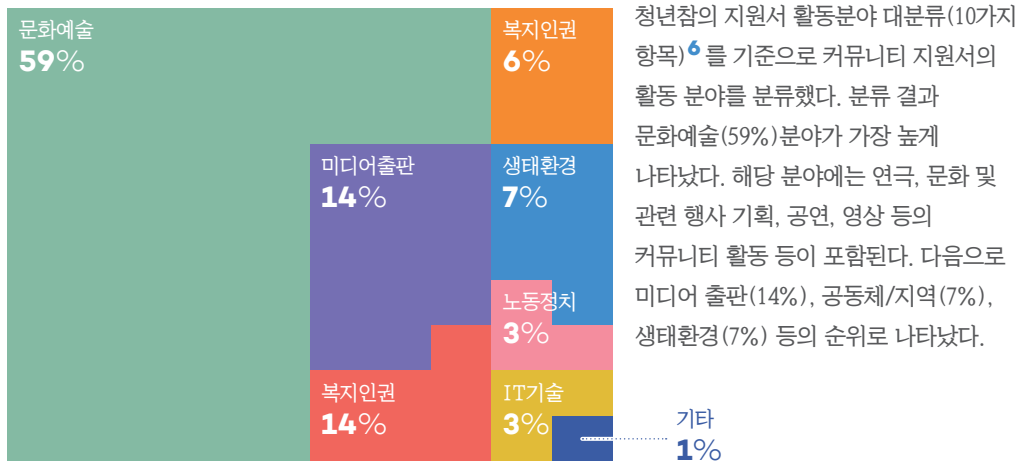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비고
기본정보	① 활동 분야	기관마다 다른 구분으로 인해 청년허브 기준에 따라 재분류
	② 활동 기간	해당 내용을 묻는 질문 항목이 있는 기관 내용만 활용
	③ 활동 지역	해당 내용을 묻는 질문 항목이 있는 기관 내용만 활용
	④ 대표자 성별 분포	해당 내용을 묻는 질문 항목이 있는 기관 내용만 활용
	⑤ 구성원 나이 분포	해당 내용을 묻는 질문 항목이 있는 기관 내용만 활용
	⑥ 초기 구성원의 관계	지원서 내용을 통해 연구진이 추정
커뮤니티 기반	⑦ 모임 장소	해당 내용을 묻는 질문 항목이 있는 기관 내용만 활용
	⑧ 모임 주기	해당 내용을 묻는 질문 항목이 있는 기관 내용만 활용
	⑨ 주요 활동	지원서 내용을 통해 연구진이 추정
필요자원	⑩ 지원금 외에 필요 지원	해당 내용을 묻는 질문 항목이 있는 기관 내용만 활용
	⑪ 지원금 활용	해당 내용을 묻는 질문 항목이 있는 기관 내용만 활용
향후계획	⑫ 커뮤니티 향후 계획	지원서 내용을 통해 연구진이 추정

[표 6] 지원서 분석 항목

## (2) 분석 결과

### 가. 커뮤니티 기본정보

#### ① 활동 분야 (단위 : %)



[그림 2] 커뮤니티 활동 분야

#### ② 활동 기간 (단위 :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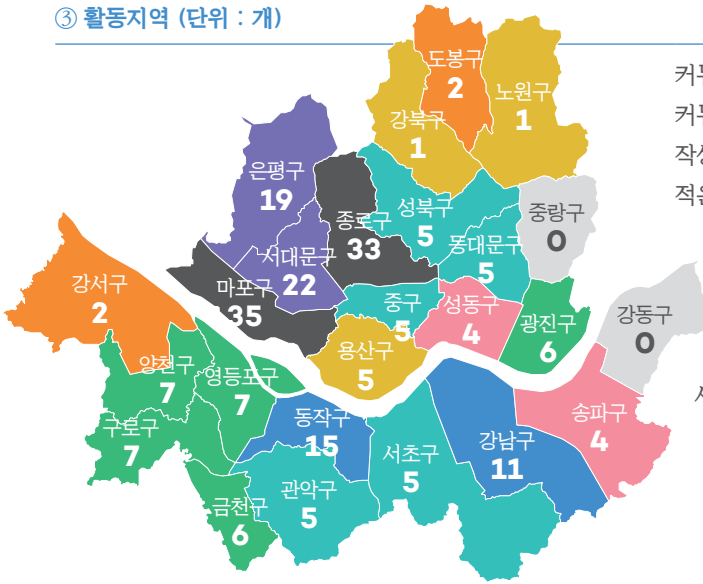
활동 기간의 중간 값은 16.3개월이다. 가장 긴 기간 동안 활동한 팀은 209개월이고, 이번 지원 사업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한(0~3개월) 팀들도 있었다. 이번 지원 사업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한 팀들은 동일한 문제의식을 확인하거나 무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모여진 후 필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지원 사업에 지원한 경향을 보였다. 즉,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활동으로 이어지는데, 지원 사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커뮤니티 활동 기간이 오래된 팀은 주축 멤버를 기준으로 새로운 구성원들이 들고나며 활동이 이어져 왔다. 또한, 사회적 이슈 확산을 목표로 목적성을 갖고 활동하는 팀 역시 결과물 제작을 위해 오랜 기간 함께 팀을 이뤄 활동하고 있었다.

#### 6

문화/예술, 교육/학습, 공예/제조, 공동체/지역, 생태/환경, IT/기술, 미디어/출판, 노동/정치, 복지/인권, 기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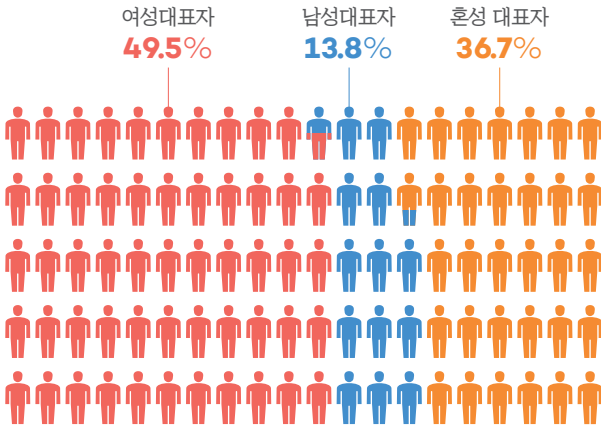
③ 활동지역 (단위 : 개)



커뮤니티 활동 지역은 지원서에 표기한 커뮤니티의 주요 활동지역을 토대로 작성했다. 활동 지역을 2-3개 자치구로 적은 팀의 중복 카운트를 허용했으며, 서울전역이라고 응답한 곳이 10개, 무응답 커뮤니티도 29개 있었다. 지역별로는 마포구(35개), 종로구(33개) 및 은평, 서대문 등 서울의 북서부 지역의 참여가 활발했다.

[그림 3] 자치구별 커뮤니티 활동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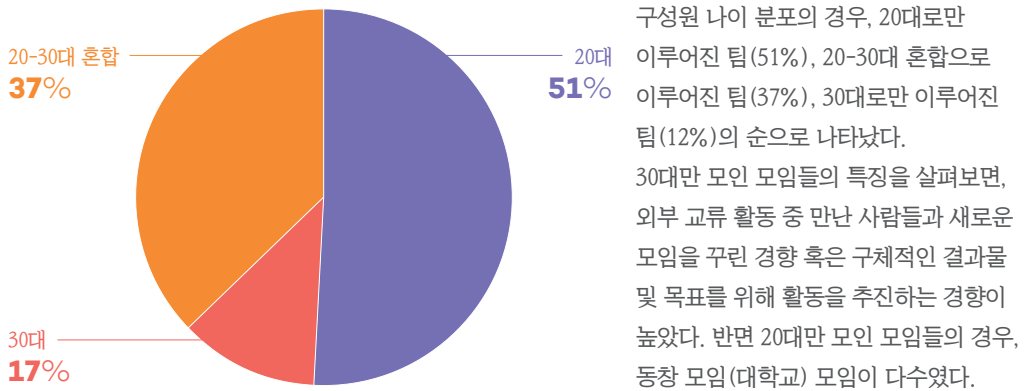
④ 대표자 성별 분포 (단위 : %)



커뮤니티 구성원 성별 분포의 경우, 청년참 지원서에 기입된 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커뮤니티 활동을 주도하는 대표자 (1인~최대 4인까지 작성) 성별의 경우 여성으로만 대표가 구성된 경우가 49.5%로 남성만 대표자이거나 혼성 대표자로 구성된 비율보다 높았다. 팀 구성원 남녀의 성비 역시 여성이 63%, 남성이 37%로 여성의 커뮤니티 참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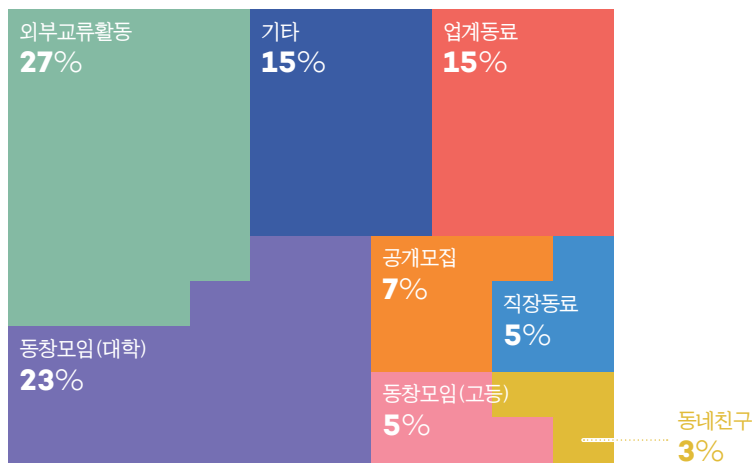
[그림 4] 대표자 성별 분포

⑤ 구성원 나이 분포 (단위 : %)



[그림 5] 구성원 나이분포

⑥ 커뮤니티 초기 구성원들의 관계 (단위 : %)



[그림 6] 초기 구성원의 관계

커뮤니티의 초기 구성원의 관계는 외부 교류활동을 통해 처음 만난사람(27%), 대학 동창(23%), 업계동료로 만난 관계(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교류 활동의 경우, 관심 있는 주제나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다시 구체적인 주제 등을 정해 활동이나 스터디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 동창 모임의 경우, 학교 내 동아리, 같은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영화, 연극, 전시회, 구체적인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기 위해 모이는 경향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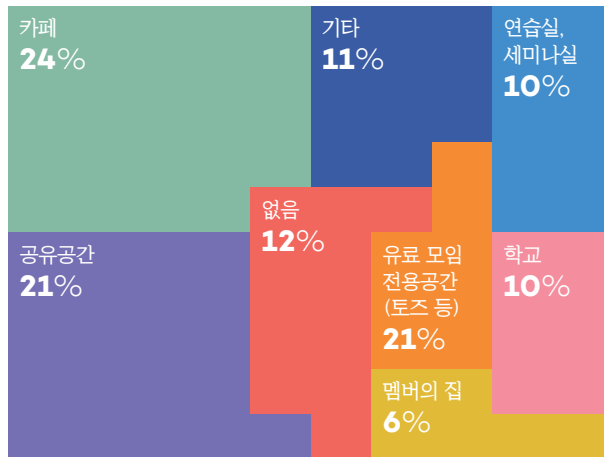
업계 동료의 경우, 직장을 벗어나 자신들의 방식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만들어가고 싶은 모임으로 발전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기존 업계 문화와 다른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의 결과물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커뮤니티 활동 형성에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개모집의 경우, 기존에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는 제안자의 주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경우로, 대표 제안자가 인터넷, SNS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에 결합하여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경로이다. 그 외에도 같은 동네, 같은 생활환경이나 처지에 기반하여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덧붙여 지원서에 서술된 모인 계기를 통해서 살펴본 커뮤니티 형성의 주요 맥락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명확한 주제의 학습을 위해 커뮤니티를 형성한다(스터디, 토론 등). 둘째, 주요 문제 상황을 함께 공감한 사람들이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져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셋째, 서로의 관심사/취향을 확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넷째, 성장이나 자기 발전(같은 처지, 동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함 등)을 목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 한다.

## 나. 커뮤니티의 기반(장소, 시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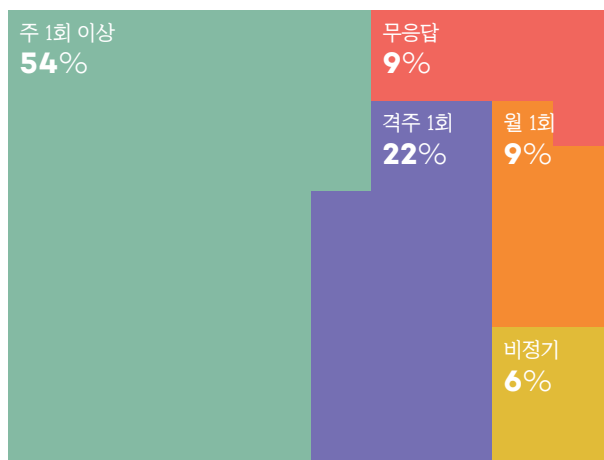
### ⑦ 모임 장소 (단위 : %)



모임 장소의 경우, 카페(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유 공간(21%)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공유 공간으로 언급된 곳은 마을 활력소, 동네 커뮤니티 공간, 무중력지대, 서울 혁신파크, 여성 프라자 등이 있다. 기타로 언급된 공간은 커뮤니티 구성원의 작업실, 스튜디오, 야외 공간 등이 있다.

[그림 7] 커뮤니티 모임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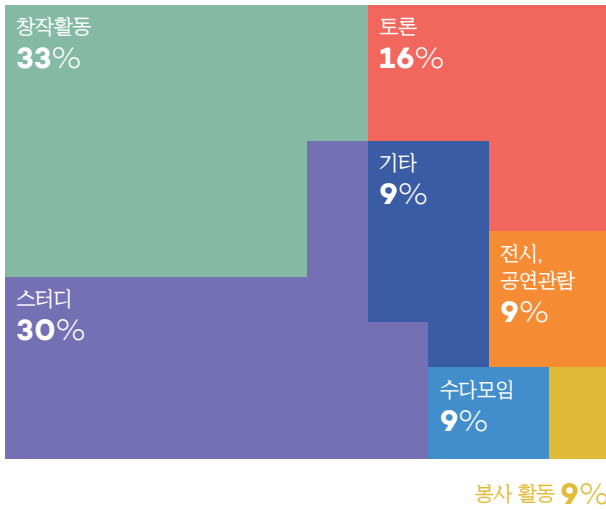
### ⑧ 모임 주기 (단위 : %)



모임 주기의 경우, 주 1회 이상(54%), 격주 1회(22%)로 나타났다. 모임의 주기는 커뮤니티의 활동 방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프로젝트 성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팀의 경우, 프로젝트 행사일이 다가올 경우, 비정기적으로 더 자주 모이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8] 커뮤니티 모임 주기

⑨ 주요 활동(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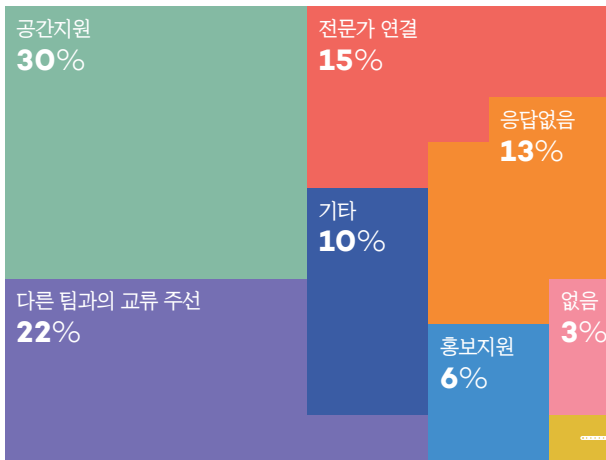


주요 활동은 연구자들이 지원서 내용과 예산 사용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분류 하였다. 일부 여러 활동을 펼치는 경우 중복 체크를 허용하였다. 그 결과 창작활동(3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테디(30%)로 나타났다. 창작활동은 연극, 공연, 문화행사 기획,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사 기획 등도 창작활동(프로젝트 베이스로 결과물을 공유하는 방식)이 다수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경작, 농구, 양봉, 여행, 정보공유 및 재능나눔 등이 포함된다.

[그림 9] 주요 활동

나. 커뮤니티의 기반(장소, 시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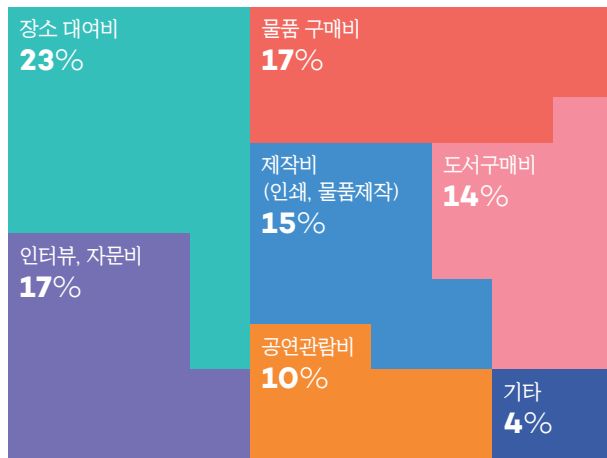
⑩ 지원금 외에 필요 지원 (단위 : %)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지원금 외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응답은 공간지원(30%), 다른 과의 교류 주선(22%), 전문가 연결(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간 지원의 경우,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물 제작 등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공간에 대한 필요가 눈에 띄었다.

[그림 10] 지원금 외에 필요 지원

⑪ 지원금 활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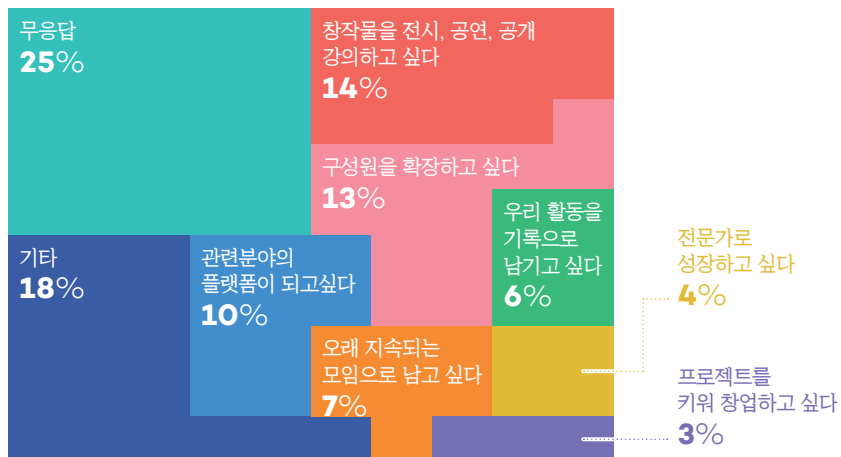


지원금 활용의 경우, 지원서 예산 편성 내역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커뮤니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장소 대관을 위한 예산 사용(23%)이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한 물품 구매비(17%),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비(17%), 구성원 간 학습을 위한 도서 구매비(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지원금 활용

라. 향후 계획

⑫ 향후 계획



[그림 12] 향후 계획

지원 사업 이후 활동 계획에 대한 응답은 현재 지원사업을 통해 이룬 성취의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더 다양하고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14%), 창작물을 전시, 공연, 공개 강의 하고 싶다(14%)로 자신들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

다는 욕구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심층인터뷰 분석 : 청년커뮤니티의 형성을 이끄는 맥락들

#### (1) 심층인터뷰 개요

심층인터뷰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청년 개인의 삶의 맥락에 주목한다. 청년 각자의 배경과 삶 속에서 어떻게 지금의 커뮤니티를 만나게 되었는지 커뮤니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의미는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현대, 한국사회의 개인, 청년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삶의 맥락을 지워내지 않고 커뮤니티와의 접점을 확인 하여 ‘청년커뮤니티는 어떤 경로로 형성되는가?’, ‘청년들은 왜 커뮤니티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였다. 인터뷰는 청년참여의 사업 목적을 드러내는 ‘관계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그리고 무중력시대 등이 진행되는 사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두 형태의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었다. 각각 2개의 커뮤니티를 선정하여 해당 커뮤니티가 지원 받고 있는 사업의 담당 기관을 통해 연결된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약 1시간 반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각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여 이후 전사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름	커뮤니티	성별	나이	커뮤니티 내용	특징
청년 A	커뮤니티 A	여	27	문화예술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 공연 감상 등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학습하는 활동	관계 중심 활동
청년 B	커뮤니티 B	여	30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에 대한 대외적 인식개선과 도서관계의 이슈에 관한 이슈파이팅을 진행	과제중심 활동
청년 C	커뮤니티 C	여	27	영화를 매개로 감독, 배우 등이 모이는 소모임. 대학에서 만들어져 졸업 이후에도 이어지는 모임	관계 중심 활동
청년 D	커뮤니티 D	여	22	코하우징을 같이하는 청년들 중 비건 청년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비건에 대한 인식확장을 도모함	과제중심 활동

[표 7] 심층인터뷰 참여자 정보

심층인터뷰는 현재 활동하는 커뮤니티 구성 이전의 삶에서 시작하여 커뮤니티 활동까지의 삶의 흐름에 대해 확인하고, 커뮤니티 활동 내용과 현재 삶에서 커뮤니티가 차지하는 의미를 질문했다. 인터뷰는 기본 질문지를 준비하되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질문의 구성을 변화하는 반 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2) 인터뷰 내용의 내러티브 구성

다음 내용은 인터뷰를 기반으로 청년 A-D의 삶을 소개한 내용이다.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청년 개인이 커뮤니티활동이전에 어떤 삶의 경로를 밟아왔는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무엇이 커뮤니티 활동으로 자신을 이끌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같은 시대,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겪는 공통된 고민을 드러내 보여주기도 했지만 각자가 가진 삶의 조건에 따라 다른 반응과 생각을 형성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분석하기 전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청년의 삶을 내러티브형식으로 구성하여 소개한다.

### 가. 청년A - (여, 27세,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A' 제안자)

청년A는 극단에서 일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살고 있다. 전공은 사회복지학이고 전공을 따라 취업도 했었지만 회사를 1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작가를 준비하고 있다. 작가라는 꿈은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가졌던 꿈이었다. 잠시 잊고 지냈다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고 취미로 했던 뮤지컬 동아리의 경험이 좋았던 경험도 있어 삶의 경로가 바뀌게 되었다.

사실 사회복지 전공은 점수에 맞춰 가느라 가게 되었고 합격을 하고나서야 자신이 합격한 곳을 알게 되었다. 운 좋게 전공이 잘 맞아서 어려움은 없었지만 취업을 하고 다닌 회사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만두었다. 실수할까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정규직 면접 제



안도 받았지만 일은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 할 수 있어서 돌아보면 퇴사의 결정이 살면서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잘 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부모님은 그의 진로를 정하는 분은 아니었다. ‘네 인생은 너 알아 살라고 하는 타입이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기쁘고 기대되고 희망찬데, 그런데 괴롭기도’하다. 준비과정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괴로움도 즐기려한다.

극단 활동을 하며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극단 내에서는 이에 관해서 깊게 이야기 해볼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왠지 이런 주제에 관심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DM으로 스터디를 제안했는데 흔쾌히 하자고 해서 모이게 되었다. 각자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모임을 하고 있고, 특별히 나와야 하는 규칙도 부담도 주지 않는데 매번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등이 모여 7-8명은 유지되고 있다.

같이 모임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왜 모였는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사실 모임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왜 이 모임에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청년참 지원을 받기 전에는 각자 자부담으로 모임비를 내야 했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쯤들해서 뭔가 믿음이 느껴지는 관계라 생각했다. 이유 없이 믿어주고 이유 없이 지지해 주는 것이 신기했다. 친구보다는 덜 친하지만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 동료라고 느껴진다.

스스로에게는 이 모임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게 해 줄 수 있는 끈이 되어주어 좋다. 극단에 있지만 공연하고 무대 올리고 하다보면 깊은 관심을 지속하기 힘들는데 그 역할을 이 커뮤니티가 해 준다. 더불어 커뮤니티에 가장 큰 걱정은 어느순간 구성원들이 재미없다고 느낄까봐, 혹은 커뮤니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것이 걱정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점차 안 나오겠다고 생각할 것 같다.

#### 나. 청년B - (여, 30세, 무중력지대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B’ 제안자)

청년 B는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다. 원래 미술을 전공하려 했으나 따르던 미술 선생님이 미술이 아닌 다른 길을 제안해 주시면서 문헌 정보학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다행히 전공이 잘 맞았고 석사 과정까지 진학하게 되었다. 사실 사서들의 처

우나 노동 현실이 그리 좋지 않아서 최대한 대우를 잘 받는 곳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으나 석사 과정에서 현장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어 현실이 어렵다는 공공도서관에 지원하게 되었다.

지금 도서관에 왔을 때 도서관계에 큰 사건이 있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2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지만 현실을 알면 알수록 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럴 바에야 스스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혼자서는 할 자신이 없어서 학교 다닐 때 알던 친구들 2명에게 제안하여 자체적인 활동을 시작해 보자고 했다. 더불어 도서관 종사자들이 연결된 메일링 서비스에 모집을 하는 글을 올려 반응해 준 사람들과도 함께하게 되었다.

우연히 만났지만 다들 나이도 비슷하고 답답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과 함께 도서관계의 변화, 대중적 인식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일차적으로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가우뚱 하지 않게 일의 내용과 가치에 대해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카드뉴스도 만들고 내부적인 이슈를 발견하고 해결해 보기 위해 작은 토론회도 마련해서 진행했다. 만나보니 다들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지만 커뮤니티라는 얇은 막이라도 하나 있다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같다.’

직장 동료들과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권위적인 분위기였던 직장도 경험했었고, 현재 직장은 활동을 용인해 주기는 하지만 아직 도서관계의 초년생으로 말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위치라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직장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줬고 혼자였다가 이런 자리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나이가 비슷하고 경력도 짧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가 빙빙 돈다는 생각도 한다.

커뮤니티 B에 대한 청년 B의 고민은 아직 제안자였던 자신을 중심으로 모임이 결속되고 있고, 자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활동은 정지 되어버린 다는 것이다. 좀 더 사적으로 친해져야 유지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작업이 기반이 된 모임이라 공적인 면이 있어서 그 균형에 대한 고민이 있다.

#### 다. 청년C - (여, 27세, 청년참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C' 참여자)

청년C는 지역에서 이주해 혼자 자취하며 서울에서 살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C의 원래 목표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서 프로필을 돌려보아도 오디션 볼 기회조차 잡기가 힘들다. 이런 삶에서 의지가 되는 사람들은 대학시절부터 함께 했던 영화감상 커뮤니티이다.

원래 이 커뮤니티는 그가 다니던 대학의 연기와 조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과의 단합도 도모하고 영화도 공부하면서 서로 친해보자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대학의 연기과의 폐과가 결정되면서 함께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는 모임의 성격도 띄게 되었다. 전과하는 사람도 많고, 편입도 하고, 동기와 선배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청년 C도 학교가 날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연기를 그만 둘까 생각도 했다. 그러나 연기자의 꿈을 안고 어렵게 들어온 학교인데 '졸업은 해야겠다' 생각하며 소속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 커뮤니티는 연기자라는 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 시절에도 자취를 하고 서울에서 사는 지금도 자취를 하지만 대학시절은 대학이라는 소속을 통해 느꼈던 안정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같은 자취라도 훨씬 힘들다는 생각을 한다. 원 가정에서 힘든 기억들이 있었고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힘들 때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가장 의지가 되는 관계는 이 커뮤니티와 남자친구의 존재이다. 남자친구는 안정감을 주지만 딱히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 할지는 의문이다. 원 가정에서도 가족에 대한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는데 내가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바로 연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많이 우울해 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도 혼자 있는 것보다 외출하고 알바를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웬만하면 카페 같은 곳을 찾아 사람들 속에 있기를 선택한다. 혼자라는 우울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미 졸업도 하고, 과는 사라졌지만 이 모임은 유지되어 서울에서 지내는 지금도 청년C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신을 연기자로 인정해 주고 그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청년 C는 이들에게 주는 것은 없이 받기만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모임 안에서 힘과 위로를 받고 있다.

라. 청년D - (여, 22세,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D' 참여자)

청년 D는 비건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고, 비건에 대해 알리기도 하는 커뮤니티 D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는 사실 여러 청년들이 함께 지내는 코하우징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함께 하고있는 커뮤니티다. 커뮤니티 속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고, 이 코하우징 커뮤니티 안에는 커뮤니티D와 같이 관심사나 필요가 맞는 사람들이 별이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많다.

청년 D는 원래 부산에서 살았는데 대안학교를 다니던 친언니의 영향으로 자신도 대안학교를 지원해서 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전라도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다. 그러다 그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는데 자퇴의 이유 하나는 자퇴를 해도 삶이 나빠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살면서 비건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기숙사의 식단이 육식위주라 식생활이 되지 않으면서 건강이 나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퇴를 하고서는 부산으로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실제 가족들은 바빠서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고, 자퇴 이후 자신의 관계적 필요를 채우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하는 통에 우울증이 심하게 오기도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울에서 하는 3개월짜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낼 곳을 알아보다 현재의 코하우징 커뮤니티에 머물게 되었다. 그 안에서 낯선 사람들이지만 너무 편하게 자신을 대하고, 장벽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것에 안심하며 교육 이후에도 그곳에서 살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처음 커뮤니티 D를 진행하려 한 것은 같이 지내는 사람들 중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고, 같이 뭔갈 하면 좋겠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혼자서는 식재료 구매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채식 식단을 구성할 수 없는데 함께라면 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실제적 필요도 작용했다. 함께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전에는 채식이라는 나의

생활에 대한 문제가 누군가와 이야기 할 때 개인적인 이슈로 논의되었던 것에 비해 공적인 문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주제로 코하우징 커뮤니티 내부 뿐 아니라 외부로 이야기를 발신하는 활동도 할 수 있었다.

청년D는 현재 활동에 만족하고 있지만 느슨한 관계가 갖는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느슨함이 활동을 펼치는 데는 아쉬움이 있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

### (3) 인터뷰를 통해 본 청년커뮤니티 형성의 맥락들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 활동은 내 관심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많은 활동 중의 하나이다. 커뮤니티 활동이 자신이 가진 시간 혹은 재정, 정서적 자원을 배분하는 선택적 활동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혼자 있기를 선택하지 않고, ‘커뮤니티-하기’를 선택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음은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4인 청년의 인터뷰를 통해 각자가 커뮤니티활동을 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마주치는 주요 공통적 맥락들을 정리한 것이다.

#### 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경험

개인화 된 사회에서 삶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몫이 된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선택은 자유롭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이익, 고통에 대한 감수 역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sup>7</sup> 때문에 역설적으로 현대인의 삶이 표준화된 삶의 경로를 쫓게 되기도 한다. 제도가 보장해주는 삶은 4인 가구라는 표준에 맞춰져 있다. 노동시장의 작동방식에 순응 하여 취업을 해야 하고 그 후 결혼 그리고 육아라는 표준에 맞춰 살아갈 때 개인이 짊어져야 할 삶에 대한 위협을 국가 제도 안에서 관리해 나갈 수

---

7

『위험사회』, 221p

있다. 만약 그 경로에서 벗어난 선택, 그 경로가 아닌 것을 꿈꾼다면 삶에서 더 많은 위험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이나 독립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이행기 청년도 이러한 위험 부담 때문에 선뜻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선택하기 어려운데 청소년기의 경우 선택의 제약은 더 크다. 청년 A와 B는 진로에 관해 자신이 청소년기에 가졌던 꿈과 다른 선택을 해야 했던 경험을 들려준다.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중략) 그게 (전공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시로 들어갔는데 정시로 들어가면 옆에 일곱점수 뜨잖아요. 그래서 학과를 가리고 제 점수에 맞는 데 들어갔고, 저는 합격을 하고서 제가 합격한 곳을 알게 되었어요.” (청년 A)

“제 기억에 제가 무언가 하고 싶었을 때부터는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고3 때도 그림을 했는데, 저는 학원을 안다니고 화실에서 배웠어요. 이것도 특이한 경로인데 제 미술 선생님이 다른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게 고3때 그러신 거예요. 이유는 돈이 많이 들고, 성공하기도 어렵고, 벌이도 좋지 않고, 나는 네 인생에 책임을 느끼는데 너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으니까 나는 사서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청년 B)

그렇게 청년 A는 자신이 지원한지도 모르게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되었고, B는 진로를 바꾸어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그렇게 선택한 전공에 불만은 없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있었으나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 가능성을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접어야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앞으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개인에게 바람직하다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D는 청소년기부터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길을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선택해 나간다. 대안학교를 선택한 것도, 비건의 삶을 선택한 것도, 자퇴를 선택한 것도 주체적인 판단을 통한 것이었다. 하지만 주체적인 판단만 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귀속된 커뮤니티인 학교를 떠나자 그에게 펼쳐진 것은 선택지는 많지만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혼자로서의 시간들이었다.

“제가 기숙사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평일 내내 지낸 것이 처음이었는데 생각한 것과 일상생활의 모습들이 많이 달랐다. 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을 보내야했고, 그 사이에서 혼자서 스스로 시간을 계획하고 그걸 실제 꾸려간다는게 무지 어려웠고, 교류가 없어지니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예 사회활동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전에 가던 책모임도 계속 가고 지역의 꿈드림센터도 가고 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 씩 놀러가서 사람들이랑 놀고 그랬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말도 더듬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건망증도 생기고 그랬다가 바닥을 치고, 이게 나누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청년 D)

이런 상황들을 종합할 때 청소년기에 이들은 ‘선택권 자체가 제한되어 있거나, 선택은 가능하지만 스스로 삶을 구성해 낼 힘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마냥 이대로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주어진 조건이라는 제약적 틀이 점차 줄어들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선택할 수 있는 삶’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행기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정을 실행하는 능력이나 경험, 자원을 확보해 나간다.

청년 A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전공을 살려 일하기를 그만두고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되고 싶었던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는 이행기 자신의 삶에 대해 탐색의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전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말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한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기쁘고 기대되고 희망찬데. 그런데 괴로워요. 준비 과정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괴로움도 즐기면 되죠.” (청년 A)

#### 나. 선택한 길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을 보냄

점차 선택할 수 있는 삶으로 전환되면서, 그리고 선택해야만 하는 삶의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 삶의 방식,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을 진정으로 환대해 주는 사람들을 가까운 곳에서 찾기는 어려웠다. 청년 A는 사회복지라는 원래 전공을 살려 들어갔던 첫 직장에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거기서 원하는 제 모습은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질문자 : 조금 더 그 모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회사 다닐 때 늘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실수할까봐. (중략) 뭔가 하더라도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마음에 들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 만족이 커야하는데 사수의 만족에 들어야 한다는 기준이 어려웠다. 눈 뜨면 ‘오늘도 실수하겠지, 혼나겠지’ 라고 생각했고.” (청년 A)

청년 B가 경험한 첫 직장의 경험 역시 별반 다르지는 않다.

“저는 여기가 2 번째 직장이다. 첫 번째 다니던 곳은 되게 권위적이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아예 못하게 했다. 저는 새로 (학교에서) 배우고와서 해보고 싶은게 있었고, 한창 신났을 때인데 뭘 그런걸 하나 약간 이렇게 있었고. 이거저거 못 하는게 있었고.” (청년 B)

청년 C는 연기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연기 입시 과정을 거쳐 대학에 들어갔지만 별안간 자신의 과가 폐과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그래도 1년을 보냈는데 신입생을 받았는데 신입생이 들어가자마자 폐과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폐과가 예전부터 계속 말이 있었데요. 그런데 이번만, 이번만 하면서 유예하다가 팡 터진거죠. 그때 당시에 저는 다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다 학교가 날 책임져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연기를 그만두어야 하나 앞으로 되게 현실적인 꿈을 꺾어야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 연기를 그만둬야하나 앞으로 되게 현실적인 꿈을 꺾어야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중략).. 그런데 저는 연기를 그만해야지 싶으면서도 힘들게 들어왔으니 여기를 졸업하자고 생각에 계속 다녔던 것인데..” (청년 C)

청년 D는 비건이라는 삶의 방식을 지키고 싶지만 자신의 삶의 실천이 관계의 불편을 가져오는 경험을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실천을 무시하고 존재를 지워버리는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제가 지금 교육 받는 데서는 고기를 제가 육류를 먹지 않는데도 밥을 먹거나 간식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전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내가 이 조직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



는 거죠. 거기서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계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참 불편하죠.” (청년 D)

인터뷰 참여자 각각의 경험 속에서 이들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한 명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현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사회에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기를 요구받거나 (A의 경우)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구성해 나갈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고(B의 경우) 심지어는 마치 이들의 존재는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거나 선택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도 한다. (C와 D의 경우)

이러한 경험은 청년들에게 좌절을 주고 있음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러한 좌절감에 짓눌리기 보다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변화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그 주된 이겨내기의 방식이 ‘커뮤니티 형성’ 즉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 다.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남

청년 B는 사서로 일하면서 사서라는 직업을 자신의 정체성,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사서라는 직업이 외부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내부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와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가 있음에 속상해 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너무 속상했고, 그런 마음을 정리 하다가 그럴 바에는 (제가) 스스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고, 학교 때 동기였던 친구 2명한테 이런걸 해보고 싶는데 같이 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이 두 친구 외에도 자신의 활동 취지를 듣고 온라인을 통해 찾아온 사람들이 지 모이게 되었다.

“나이가 비슷한,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사이 썸들하고 몇 명, 그래도 6-7명 밖에 안되었는데 처음으로 그룹 형태가 된거죠. 그런데 우연히 만났는데 나이도 비슷했고, 사실은 다들 좀 답

답했던 것이예요. 저희가 뭔가 꿈꿔왔던 것과 다르고 다른 것이 돈 못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친구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직장에서도 약간 너무 권위적이거나 선배들이 현실과 타협해 있다고 저희는 느꼈던 거죠 젊은 마음에. 그런 사람들끼리 우연히 모여서 그럼 우리 하고 싶은 거 우리끼리 해보자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청년 B)

그들은 도서관계에서 흔히 말하는 ‘튀는 존재’가 되었다. 좁은 업계 안에서 활동 하나하나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주는 사람들도 익명성을 전제로 활동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적어도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다들 말할 곳이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자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했음을 체감하고 있다. 이들에게 커뮤니티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로서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청년 D도 자신이 추구하는 비건이라는 라이프스타일을 혼자 살아내면서 고민하기 보다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다.

“우리 정체성이 뭘까 우린 가난해, 진짜 다들 가난하게 채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빈민으로서 어떻게 채식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컸다. 저희는 유통기한 임박한 위트믹스 같은 거 박스째로 사서 그런 식으로 채식을 해서 도시에서 채식 실천하는 것 가난하면 너무 힘들다는 공감을 했고. (중략) 근데 혼자 하는 것은 나를 깎아 먹는 일이고 혼자하면 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못하는 것 보다 같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게 많아요.” (청년 D)

이들이 우선 모여 자신들의 상황에 공감했다는 것은 청년 B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 자신이 가진 사회에 대한 의문, 삶에 대한 물음이 대다수 다른 사람들이 수긍하고 따라서 사는 삶과 다르지 않았다면 느끼지 않았을 감정이다. 그리고 D 역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서로 공감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엄청 고기를 좋아하는데 채식 왜 하나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게 개인-개인의 일이 되었는데 좀 더 공공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 D)

반면 청년 A와 C의 경우 모인 사람들과의 ‘함께함’이 커뮤니티의 외부와의 소통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B와 D가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모였다면 A와 C는 자신이 선택한 삶,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그 선택을 서로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연대하는 자조 모임에 가깝다.

“그냥 이유 없이 믿어주고, 이유 없이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문화예술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A)

“제가 이런 고민(연기를 그만두거나 연기자가 아니라 연기관련된 직업을 가져야하나 고민)을 갖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연기 그만하고 연기 안에서 예술경영으로 간다든지 연기 선생님 할래요 하면 너무 안타깝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생각해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연극 한 번 더 보러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청년 C)

이러한 모임이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며 현실을 버텨내기 위해 안으로만 모이는 섬과 같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섬들에 대해서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의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 젊은이들을 가리켜 일방적으로 ‘내향적’이라고 단언해 버리는 것은 ‘젊은이’라는 ‘섬우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자. 대학을 졸업하고 한 기업에서 일하면서 오로지 출세를 위한 경쟁에만 몰두해온, 즉 취미라고는 골프나 마작 정도밖에 모르는 ‘아버지’들이야말로 우리들의 눈에는 더욱 ‘내향적’으로 보이지 않는가?”<sup>8</sup>

---

8

후루이치 노리토시,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이연숙 역, 민음사, 2014, 141p

#### (4) 요즘 청년의 ‘커뮤니티형성’의 경로 구성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과 커뮤니티가 교차하는 과정을 살피면서 연구자들은 청년들에게 청년커뮤니티의 형성이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정리해 놓고 보면 단순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간적이거나 우연하기만 한 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앞서 네 청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이 사회에 진입해 자신의 삶을 구성해 가는 주체로서의 발을 내딛을 때 사회가 이들을 대하는 방식, 그 속에서 청년들이 겪는 역경 속에서 청년들은 그 역경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선택한다.

울리히 벡은 전통적 공동체의 부양책임의 약화가 가져온 해방(탈귀속)을 통해 떨어져 나온 개인이 사회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고 이 필요를 새로운 사회적 결속을 형성함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sup>9</sup> 새로운 사회적 결속을 다른 커뮤니티가 아닌 제도나 시장과 맺을 수도 있다. 서구의 경우 복지제도에 따라 자신의 삶의 경로를 설계해 나가는 제도적 결속 경향이 강한 반면 상대적으로 제도적 안전망이 덜 갖춰진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이야기 된다. 시장에 의지한 사람들은 초과교육, 초이동성, 과잉 경쟁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긴다.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결속을 형성하는 청년들이 반 시장적이라거나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눈을 돌린 채 살아가는 고고한 삶을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삶의 어떤 부분은 그러한 시장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경쟁 기반이 아닌 ‘협력’기반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모두가 살아가는 대로의 표준, 시장적 개인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구성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독특한 만큼 실패의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노력은 그 노력이 크지 않더라도 전적으로 사회와 삶의 조건에 자신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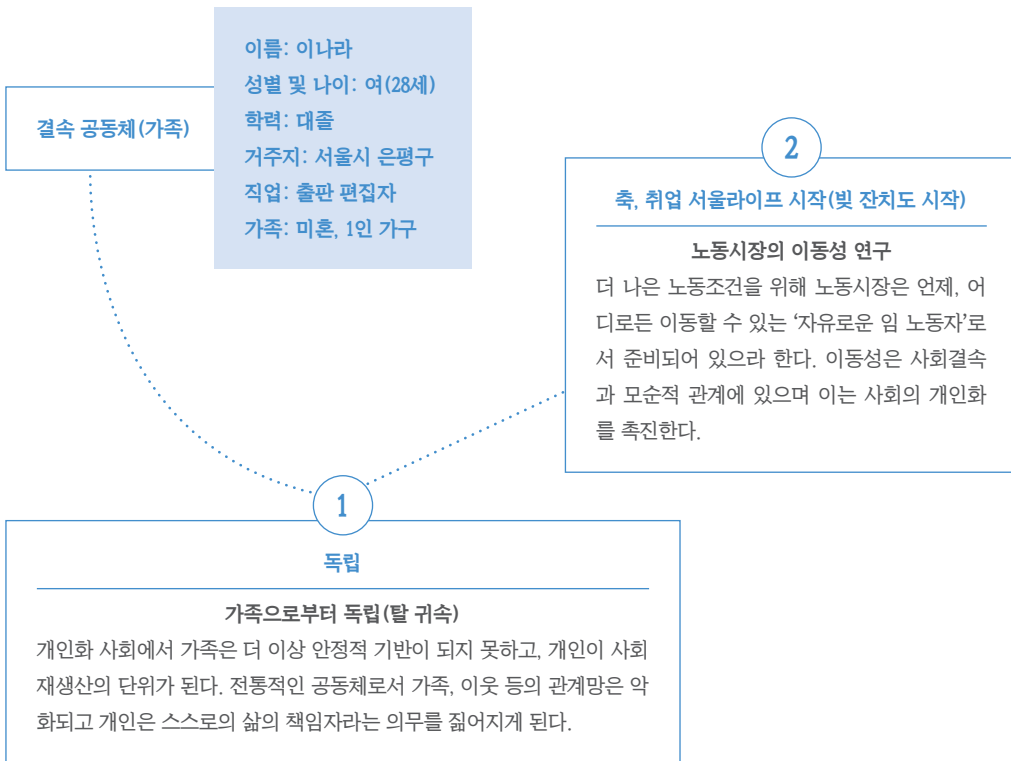
9

『위험사회』, 211-212p

맞춰서 살아가는 삶에 비해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가상의 인물인 ‘이나라’라는 인물을 만들어 아래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나라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만난 4인의 인터뷰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하고, 서울에 정착하는 여성들의 삶을 질적 연구를 통해 근거이론으로 설명한 안윤정, 임윤서(2018)의 연구를 참조하기도 하여 탄생한 인물이다. 이러한 경로의 시각화는 질적인 연구의 두꺼운 논의를 단순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두꺼운 논의를 따라가며 ‘청년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청년의 삶을 막연히 상상하게 하는 것 보다는 이들이 가진 고민, 사회적 상황과 압박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유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커뮤니티가 되기를 선택하는 결정의 맥락의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청년의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행위는 삶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원하는 청년들의 적극적 실천임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의 커뮤니티-되기 경로 맵핑



독립출판사  
준비 모임 결성

6

### 여성 창업자들과의 만남

#### 다시 들어가기로 선택함

개인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떨어져 나오느’ 탈 귀속의 과정 뿐 아니라 ‘다시 들어가는’ 혹은 ‘다시들여가기’를 선택하게 하는 끌어 당기는 요소이다. 이 ‘다시들여가기’의 과정에서 개인화, 선택의 주체로서의 개인의 역사가 구체적이고 분명해 진다.

ACTIVE

내가 선택한 삶을 함께  
버텨나갈 힘 ‘커뮤니티’

5

### 주말 여성 창업 프로그램 참여

#### 내가 하는 선택이 나를 말해준다

“각자가 결정할 수 없는 생애의 비중은 줄어들고, 각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결정해야만하는 생애의 비중은 늘어난다” 개인이 결정하는 삶의 비중이 늘면서 삶은 ‘자기성찰적’으로 되어간다. 표준화된 삶을 따르지 않는 개인들은 선택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생애의 결정권을 확대해 나간다.

4

### “퇴사는 무슨 퇴사! 돈 모아 결혼할 생각하라”는 부모님

#### 표준화된 생애주기와의 불일치

가족 공동체에서 이탈해 개인의 자율성이 증진되는 동시에 사회구조적 위험에 대한 개인적 부담은 증가한다. 개인의 안정망을 구성하기 위한 대표적 방안은 가족의 구성(결혼)이다. 하지만 경제적 혹은 이념적 이유로 취업에서 가족 구성으로 나아가는 표준화된 생애주기를 따를 수 없(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탈표준화 현상은 가속된다.

3

### 취업과 함께 오는 현타 ‘이 길이 내 길일까’

#### 발현성인기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과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불안정한 시기이며 인생에서 가장 개인 자신에 초점을 맞춘 시기이고 ‘끼인’시기이며 여러 기회가 제공되는 ‘가능성의 시기’이기도 하다. 처음 자신이 스스로 삶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만 자유를 추구할 자원은 부족한 시기이기도 하다.

PASSIVE

서울살이와 함께  
시작된 대출, 저임금 노동  
속 불투명한 미래

[그림 13] 청년의 커뮤니티-되기 경로 맵핑

## 4. 그룹인터뷰 분석 : ‘청년커뮤니티 활동’의 주요 맥락들

### (1) 그룹인터뷰 개요

그룹 인터뷰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사례들로부터 청년들의 커뮤니티활동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고 심층인터뷰 등 사전에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초기 연구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 그룹 인터뷰의 대상자들은 청년 커뮤니티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선발된 팀 들 중 지원서를 기준으로 연구자들이 청년커뮤니티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팀들을 리스트화 하여 청년허브 및 무중력지대의 해당 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했다. 각 커뮤니티에서 대표자(실제 커뮤니티의 대표역할일 필요는 없음) 1인이 참여하도록 했고 가능한 일정 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그룹(진행일)	이름	커뮤니티	성별	나이	커뮤니티 특징
그룹 1 (19.08.19)	청년 E	커뮤니티 E	여	31	무용계의 여성 인권을 위한 페미니즘모임
	청년 F	커뮤니티 F	여	40	도봉지역 문화공동체 활동 거점 서점 운영
	청년 G	커뮤니티 G	여	25	지역거점의 플라스틱제로 활동
	청년 H	커뮤니티 H	여	23	권위에 대항하는 문화행사 기획 운영
	청년 I	커뮤니티 I	여	29	여성방송작가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청년 J	커뮤니티 J	남	36	대학을 거점으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
그룹 2 (19.08.20)	청년 K	커뮤니티 K	여	22	극단의 막내들이 모여 학습, 극작 준비
	청년 L	커뮤니티 L	여	28	성인들의 마음 나눔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 M	커뮤니티 M	여	34	프리랜서들이 모여 각자 할 일을 하고 헤어짐
	청년 N	커뮤니티 N	여	37	퇴사자들이 모여 퇴사 주제의 전시 기획·운영
	청년 O	커뮤니티 O	남	20	대학생들이 모인 환경, 인권 주제 네트워크
그룹 3 (19.08.27)	청년 P	커뮤니티 P	남	27	문화재 소개 유튜브 제작
	청년 Q	커뮤니티 Q	남	24	청년들의 심리상담 주제의 학내 프로젝트 진행
	청년 R	커뮤니티 R	여	35	자립을 꿈꾸며 즐겁게 음악하는 청년모임

[표 8] 그룹인터뷰 참여자 정보

그룹인터뷰는 심층인터뷰와는 달리 인터뷰이 개인의 삶의 맥락 속에서의 커뮤니티의 의미 보다는 현재 참여하는 커뮤니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커뮤니티의 시작을 돌아보고, 활동의 방식, 커뮤니티 활동의 의미 등 형성이후의 활동에 집중했다. 그룹인터뷰를 진행하며 물었던 질문의 주요한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는 각 그룹마다 약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구분	목적	질문
도입	기본 정보 안내 참여자 간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소개 및 그룹인터뷰 진행 안내</li> <li>• 내 커뮤니티를 소개합니다 : 자기 커뮤니티 소개 명함만들기</li> </ul>
기반	커뮤니티를 이루는 기반 요소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 멤버 구성 시 가장 고려하게 되는 지점은?</li> <li>• 모임 시 공간의 필요와 자신들의 모임에 공간이 차지하는 의미는?</li> <li>• 만남의 횟수와 주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li> </ul>
상호작용	커뮤니티의 운영 과정, 결과의 상에 대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의 진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가?</li> <li>• 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li> <li>• 우리 모임이 지속가능하다 생각하는지, 지속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li> </ul>
맥락	자신이 생각하는 요즘 커뮤니티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청년 커뮤니티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내용과 그 이유는?</li> <li>• 청년에게 커뮤니티란 어떤 의미인가?</li> </ul>
마무리	정리 및 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이야기의 과정 회고</li> </ul>

[표 9] 그룹인터뷰 흐름과 질문

## (2) 그룹인터뷰 분석

그룹인터뷰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은 주로 청년들이 어떻게 커뮤니티활동을 하고 있는지 커뮤니티를 이루는 과정과 구성요소(기반-상호작용-공통의 유대(목적))에 따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통 주제 및 연구자의 관점에서 흥미롭거나 현대사회의 커뮤니티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맥락을 기술하였다.



**대주제                      주제별 주요 맥락      주요 인용**

커뮤니티 모집과정	SNS피드는 데이트 앱보다 매칭도가 높다	“저희는 완전 다 모르는 분들인데, 약간 뒤늦게 트위터로 3명을 더 모집한게 신기한게, 저는 트위터를 오래해서 트위터 타임라인을 보고 있으면 데이트 앱 보다 훨씬 더 매칭도가 높은 앱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동하는지 그래서 저희에게 맞는 분들이 와주셨고.” (2차 FGI 참여자, 청년 M)
	제안이 받아들여졌을 때의 기쁨	“네, 저는 상당히 두려웠어요. 내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아무리 SNS에 그런게 올라왔다고 해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되게 떨렸는데 또 흔쾌히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마웠다. 둘이 처음에 만들어서 한 명씩 불러오는 형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1차 FGI 참여자, 청년 E)
커뮤니티 기반 (장소)	저희는 떠돌아 다니고 있다	“저희는 떠돌아다니고 있다. 진짜 주말에 보통 행사를 여니까 대관비가 비싸고요. (중략)... 가격이 저렴하려면 외곽으로 가야하고. 그러면 또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장소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차 FGI 참여자, 청년 L)
	공간에서 만나요	“저희는 4명 남은 팀원들이 일산 쪽에 2명이 살고, 저는 강북, 한 명은 안양에 살아요. 그냥 중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중간쯤에 모여요. 항상 종로, 무교동 스타벅스. 엄청 크거든요. 오래 있어도 뭐라 하지 않아요. 혁신파크나 무중력지대도 가긴하는데 저희는 중간밖에 선택지가 없어서. 여러 청년 공간들이 불편해 질 때가 있어요.” (3차 FGI 참여자 P)
	행사에는 적합한 공간이 필요하다	“무중력지대 00도 알고 있었는데 가봤더니 컨테이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뭐랄까 밖에서 보여서 이용하기가.. 마음편하게 놀아야 하는데 밖에서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으면 마음 편히 못 놀겠다 해서 그래서 탈락시킨 것도 있고. (중략) 불광도 여기서 할까 했는데 은근 오픈형인거예요. 저기서, 여기서 할까 하다가 다 보이네 밖에서. 그럼 원숭이 느낌이 나겠다 싫어서 그래서 탈락” (2차 FGI 참여자, 청년 L)
커뮤니티 기반 (돈)	돈은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같이 있으려고 돈 버는 느낌 (질문자 : 이 안에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요?) 안그러면 버티기 힘들어지는 친구는 돈 벌러 때문에 가버려야 되니까” (3차 FGI 참여자, 청년 R)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	“돈이 없으면 예민해 지는게 출력자료 같은걸 뽑더라도 각자 사비를 써야해요 (중략) 애들이 얼마 나왔어 할 때 마다 스트레스가 있는거죠. 저도 대학생인데 제가 대표다 보니까” (3차 FGI 참여자, 청년 Q)

대주제	주제별 주요 맥락	주요 인용
커뮤니티 기반 (사람)	너 내 동료가 되라고 말했다	“어떤 기준 그런 건 없고, 잘 하는 사람보다는 우리랑 같이 했을 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였다.” (1차 FGI 참여자, 청년 H)
	그리고 보니 여성들이 모였네요	“질문을 듣고 생각해봤는데, 저희 모임의 대부분도 30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섯 명 중에 1명만 남자다.” (2차 FGI 참여자, 청년 N) “수궁하면서도 그러게도 남성분들이 오긴 하지만 저희도 여성 비율이 높다.” (2차 FGI 참여자, 청년 L)
	취향은 계급과 차이를 넘게 해주는 계기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랑은 다른거 같아요. 뭔가 되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취향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3차 FGI 참여자, 청년 Q)
커뮤니티 상호작용	이 관계는 내가 선택한 것	“현실에서는 직장이나 물리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참아줘야 하고,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데 그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해소되는 것도 있고” (1차 FGI 참여자, 청년 J)
	프로젝트라는 방식을 통해 커뮤니티를 경험	“서로 안맞을 것 같은데 이거 했다가 평생 이 사람들이랑 일하는 것 아니야? 이런 무서움들도 있고, 간헐 것 같은 폐쇄적 공간일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경험하면서 아 그냥 20대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과 있다보니 만나고 헤어지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들만 맞다면.” (연구 리뷰어)
	온전히 나로서 판단없이 받아들이는 경험	“일터에서는 직장이다 보니까 일이다 보니까 뱉지 못하는 말이 많은데, 자연인으로서의 내가 나올 수 없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자연인으로서의 나. 내가 생각하는 정말 바보 같은 말도 생각도 다 하는 그런 룰이 있는 것 같다.” (1차 FGI 참가자, 청년 I)
	위계가 없이 만나는 문화	“무용계는 위계가 너무 쎄서 직속 선후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동되는 위계가 자연스럽게 그런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게 공동체를 빨리 결속시키는데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자고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서” (1차 FGI 참여자, 청년 E)
	따로 또 같이 네트워크로 움직이기	“저희를 표현하면 느슨하게 연결되고 비 중앙적이고 비 위계적이고 고양이를 돌보기 위한 사람들 간의 연대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걱정하는게 오프라인 모임을 지양하게 된다. 학교라는 공간에 있어서 학번에 의해서 위계가 생길수도 있고” (1차 FGI 참여자, 청년 J)

대주제	주제별 주요 맥락	주요 인용
커뮤니티활동의 목적	커뮤니티도 결국 나를 위한 것	“행사 이름을 000 사람들이라고 지은 것도 남들이 봤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 어떤 취미가 한심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한테 한심한지는 모르는 거니까. 나중에 그게 그 사람에게 큰 직업이나 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1차 FGI 참여자, 청년 H)
경쟁 없이 함께 성장하기를 꿈꾸기		“저희 팀을 한 마디로 소개하자면 저희는 그냥 ‘같이 성장하자’. 저희가 팀을 꾸린 이유도 같은 극단에서 만난 막내라인들이다. 근데 저희가 선배들이랑 경력차이도 많이 나고 겉차이가 많아서 막내라인이 다 비전공자들이어서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혼자서 무언가를 공부해 나가려하니깐 공부량이 너무 방대하고 재미가 없어서 올해 초에 뭐라도 해보자 해서 (2차 FGI 참여자, 청년 K)
혼자라면 못할 일을 해주는 곳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전시라는 목적성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절대 혼자서는 못할 경험 그걸 하게 해준 집단이었어요. 저예겐” (2차 FGI 참여자, 청년 N)
우리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		“일터에서 만났지만 방송계에서 느낀 불만들 한계들 때문에 되게 좀 약간 서로 억눌려 있었다면 그 억눌림을 여기서 다 풀자 하지 못했던 이야기 다하고, 하고싶던 아이템 하고. 방송국에서는 데스크 보는 사람들이 중년 남성이다 보니까 청년이고 여성인 페미니스트인 우리의 이야기는 킬 당하는데 킬 당한 우리의 아이템들 우리가 하자 그랬기 때문에 재밌게 좀 할 수 있는 것 같다.” (1차 FGI 참여자, 청년 I)

[표 10] 그룹인터뷰 결과 : 주요 주제와 관련 인용

## 가. 커뮤니티 모집과정

### ① “SNS 피드는 데이트 앱보다 매칭도가 높다.”

커뮤니티 구성원을 모으는 방식에 있어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활용이 눈에 띄었다.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 된 일이지만 이를 커뮤니티 구성원의 확보와 모집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때로는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청년들은 SNS피드를 보며 내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탐색’할 수 있었고 SNS에서 ‘제안’하

여 답을 얻는 과정 까지를 SNS를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저 같은 경우 SNS통해서 그 사람 피드를 통해서 이 사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나?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다. (중략) 오다가다 만난 사이 중에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구나 깨달았던 것이 SNS통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돌렸던 것 같다. 이런 것 같이해보자고”  
(1차 FGI 참여자, 청년 E)

한 참가자는 이전에도 트위터를 통해 모인 사람들과 7년이 넘게 모이는 커뮤니티를 운영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서비스에 쌓인 정보를 통해 자신과 맞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었고 그런 사람에게 제안했을 때 높은 성공률로 커뮤니티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저희는 완전 다 모르는 분들인데, 약간 뒤늦게 트위터로 3명을 더 모집한게 신기한게, 저는 트위터를 오래해서 트위터 타임라인을 보고 있으면 데이트 앱 보다 훨씬 더 매칭도가 높은 앱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동하는지 그래서 저희에게 맞는 분들이 와주셨고.” (2차 FGI 참여자, 청년 M)

정확한 경향이라 할 수는 없지만 심층인터뷰를 비롯해서 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참가자들 중 비교적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구성원 모집은 물론 홍보, 운영을 위한 소통 메신저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같은 더 오래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 ② “제안이 받아들여졌을 때의 기쁨”

앞서 SNS를 통해 이뤄진 탐색-제안-수용의 과정은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시에 이뤄지는 활동이다. 이를 살피면서 제안과 수용의 단계에서의 경험이 커뮤니티 형성에 중요하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초기에 거절의 가능성을 가지고 던진 제안이 받아들여졌을 때 느끼는 수용과 지지의 경험은 커뮤니

티 형성의 초기 결속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네, 저는 상당히 두려웠어요. 내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아무리 SNS에 그런게 올라왔다고 해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되게 떨렸는데 또 흔쾌히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마웠다. 둘이 처음에 만들어서 한 명씩 불러오는 형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1차 FGI 참여자, 청년 E)

커뮤니티 형성의 제안과 수용의 과정은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이룬 첫 성취의 기억으로서 참여자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었다. 사실 그 경험이 반드시 참여의 제안에 대한 성취 경험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작은 성취의 경험이 쌓여서 신뢰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5년 여름에 은근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밥을 챙겨주는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다. 탈장이 생겨서 수술비 50만 원 정도가 들었다. 한 두 명의 부담으로 하기엔 큰돈 이었다. 그래서 한 분이 페이스북에 모금 글을 올렸다. 하루만에, 하루도 안 걸렸다. 몇 시간 만에 120만 원이 모여서 수술을 시킬 수 있었다. 혼자 하다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안타깝게 보내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힘을 합쳐보자’해서, 13명 정도가 단독방에 모이게 되었고, 겨울집 짓기 하며 더 모여서 지금은 한 120명 된다.” (1차 FGI 참여자, 청년 J)

#### 나. 커뮤니티 기반 (장소)

전통적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는 ‘장소’와 ‘사람’이다. 특히 장소는 커뮤니티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이다. 근접성을 기반으로 하여 근린 커뮤니티가 커뮤니티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커뮤니티의 근접성이 커뮤니티를 이루는 필수적 요소로 여겨지지 않는다. 본 연구의 장소적 경계가 서울로 한정되지만, 커뮤니티로 모이는 사람들의 활동 기반은 서울 각지, 경기도 권역까지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맥락들이 장소와 관련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 ① “저희는 떠돌아다니고 있다.”

커뮤니티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청년커뮤니티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활발한 모임에서부터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지역기반의 활동을 하는 곳까지 상황이 다양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간에 대한 수요는 정기적인 만남을 위해 비용을 들여 장소를 대여하는 형태(카페 등에서 음료를 마시며 모이는 것을 포함)로 해결하고 있었다. 커뮤니티의 필요는 다양하지만 커뮤니티가 가진 자원을 고려할 때 필요를 해소할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아 ‘떠돌아 다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저희는 떠돌아다니고 있다. 진짜 주말에 보통 행사를 여니까 대관비가 비싸고요. (중략)... 가격이 저렴하려면 외곽으로 가야하고, 그러면 또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장소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차 FGI 참여자, 청년 L)

“주변에 직장인이 많이 있는 접근성이 있는 포인트가 필요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이 있으면 대관료가 비싸지고 자체적으로 탈락을 시키기도 하고” (2차 FGI 참여자, 청년 N)

“보통 회의는 카페나 집에서 모이고, 연습하는 공간이 저희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문화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부천쪽에는 그런 곳들을 무료로 해놓은데가 있더라고요. 아예 연습공간은 3시간에 만원 정도. 이렇게 잘 되어있는데 그런거 신청남 하면 쓸 수 있게 해줘서 하고 있어요. 서울은 좀 많이 비싸고 그래가지고.” (3차 FGI 참여자, 청년 R)

### ② “중간에서 만나요”

근접성을 기반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던 과거에는 고려해야 할 ‘동선’이라는 것이 복잡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교통 수단을 통해 하루에도 수 십Km씩을 이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물리적 거리를 뛰어 넘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기에 최근에는 서로의 ‘동선’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 진다. 앞서 보았듯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티 참여의 제안이 오고가기도 하기 때문에 지리적 한계는 그 과정에서 지워져 있을 때가 많다. 하지만 실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운영하는 단계로 오면 거리가 실질적 장애 요소가 되고 서로의 생활 패턴과 이동성을 고려한 최적의 장

소 찾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작업실, 자취방 등 소유한 장소를 오픈하여 금전적 어려움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모두에게 합리적인 중간 지점을 정해 정기적인 모임의 장소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희는 4명 남은 팀원들이 일산 쪽에 2명이 살고, 저는 강북, 한 명은 안양에 살아요. 그냥 중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중간쯤에 모여요. 항상 종로, 무교동 스타벅스. 엄청 크거든요. 오래 있어도 뭐라 하지 않아요. 혁신파크나 무중력지대도 가긴하는데 저희는 중간밖에 선택지가 없어서. 여러 청년 공간들이 불편해 질 때가 있어요.” (3차 FGI 참여자 P)

“저희는 일단 (저희) 집이 용산구 한남동이고, 양천구 지원을 쓰기 전에 이미 시작하게 된 모임이라서 정말 서울 각 지역에서 6명이 모이게 되었다. 양천도 있고, 송파도 있고, 부천도 있고.” (2차 FGI 참여자, 청년 N)

“다 따로 살기는 하는데 그래서 회의는 중간지점을 찾아서 거기서 계속 고정으로 만나고 있다.” (1차 FGI 참여자, 청년 H)

### ③ “행사에 적합한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소의 적합성, 분위기를 따져야 하는 외부에 오픈하는 행사를 치를 때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사정 보다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고려한 장소 선정의 방식이 작동한다. 이때는 ‘무료이거나 공공에서 제공하는 공간은 원하는 행사의 분위기를 맞출 수 없거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무중력지대 00도 알고 있었는데 가봤더니 컨테이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뭐랄까 밖에서 보여서 이용하기가.. 마음편하게 놀아야 하는데 밖에서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으면 마음 편히 못 놀겠다 해서 그래서 탈락시킨 것도 있고. (중략) 불광도 여기서 할까 했는데 은근 오픈형인거예요. 저기서, 여기서 할까 하다가 다 보이네 밖에서. 그럼 원숭이 느낌이 나겠다 싶어서 그래서 탈락” (2차 FGI 참여자, 청년 L)

“○○ 무중력지대도 가보니까 컨테이너 건물에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어서 거기를 전시관으로 사용하기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었고.” (2차 FGI 참여자, 청년 N)

이는 과거 커뮤니티활동이 내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폐쇄형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내·외부의 필요를 교환하며 인적, 물질 교환이 이뤄지는 연계형 커뮤니티들이 등장하면서 생기는 필요들이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서비스’와 같은 재화의 교환이 이뤄지는데 이 교환 과정에서의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특징적이다.

## 다. 커뮤니티 기반(돈)

### ① “돈은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앞서 현대 커뮤니티에서 장소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룹인터뷰에 참여한 팀들 중 일부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 지역에서 커뮤니티활동을 하기 위해 생계를 서로 책임지고 있었고, 생계의 해결과 보조를 주요한 활동 주제로 삼고 활동하고 있었다.

“원래 다 문학전공.(을 했다.) 그 친구는 국문과, 일하는 친구는 문창과 저는 희곡 전공. 국문과 나온 친구는 밥벌이 하는 직장에 갔고 저는 희곡이니까 연봉 30만 원 정도인데 돈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자는 의미로 이런걸 하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다.” (1차 FGI 참여자, 청년 F)

이 커뮤니티는 위의 언급에서 나오는 밥벌이하는 친구가 벌어주는 생계비가 주요한 수입이고 이 수입을 기반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지역을 기반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 예술 커뮤니티로 활동하는 청년 R의 경우도 비슷하다.

“같이 있으려고 돈 버는 느낌 (질문자 : 이 안에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요?) 안그러면 버티기 힘들어지는 친구는 돈 벌러 판데로 가버려야 되니까” (3차 FGI 참여자, 청년 R)



이러한 언급들을 보면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어떻게 기존의 전통적 공동체 활동의 결속을 약화시켰는지. 근린지역을 기반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마을은 전통적 공동체 단위로 기본적으로 산업사회의 핵가족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로 여겨진다.(울리히 벡, 2014) 산업사회의 핵가족은 성별에 따른 역할 기준을 가져가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가족을 책임지는 여성의 역할이 나뉘어 가족을 중심으로 마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서구사회가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마을 활동이 보장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마을 활동은 많은 부분에서 아직 분업화된 핵가족 모델 그것도 성별 역할이 구분되는 전근대적 모델의 가족이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화된 사회에서 태어나 그렇게 자라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 성별 역할에서 해방을 추구하는 청년의 삶에 그러한 분업화는 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한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요구에 따라 이동성을 요구받는 현대사회의 개인에게는 기회의 감소,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에서 청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일견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② “돈은 커뮤니티 활동의 긴장을 해소시킨다”

커뮤니티 지원금은 재화로서 그 자체로 커뮤니티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직업을 가지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의 경우 지원금에 대한 의미 부여에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저희는 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긴 한데, 저희가 원하는 목표에 걸어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버스타고 택시도 타는거죠. 좀 탄력을 받는거죠.” (3차 FGI 참여자, 청년 P)

“사실 저희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직장인도 아니고 하니까, 펀드레이징을 해야하고” (3차 FGI 참여자, 청년 Q)

이러한 차이가 비단 ‘수입이 있는가 없는가’에만 영향을 받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사회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통해 돈이 아닌 다른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주목할 것은 오히려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미부여에 차이를 두기는 하지만 효과가 두 집단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일 수 있다. 개인적 수입이 없을 때는 재정적 지원이 커뮤니티 진행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이슈가 된다. 개인적 수입이 있어도 사비를 들여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은 역시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 심층인터뷰에서도 때로는 실제 필요한 돈이 없어서 보다는 ‘사비를 들여서 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라는 내부적 긴장이 커뮤니티 활동에 위기를 주기도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지원금은 이런 긴장을 해소시켜주고 좀 더 커뮤니티 활동에 몰입하고 지속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펼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햇수로 3년차인데 지난 2년간 어찌되었든 자비로 해오다 보니까 서로 말은 못해도 부담은 계속 있었어요. 조금씩 지쳐가던 차에 돈이 생기니까 다시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는거예요. (중략) 돈 내라 혹은 균등하게 나누자고 할 수도 없고,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불편해서 솔직히 저도 제가 낼게요 말할 수도 없고. 시도를 못했던 것을 이 돈안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시도도 해보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심층인터뷰 참여자, 청년 B)

#### 라. 커뮤니티 기반\_사람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의 근접성에 대한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사람이라는 커뮤니티 구성의 기반은 더 중요해 지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 등 주어진 관계가 중심이 되던 과거와는 달리 ‘친밀성’이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택적 관계 맺기가 중요해 진다는 ‘탈-전통적 커뮤니티’ 구성의 계기는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 ① “너 내 동료가 되라’고 말했다.”

“너 내 동료가 되라”라는 대사는 일본의 만화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피스』에서 쓰기 시작해 유명해 졌다. 작중 주인공 루피는 해적왕이 되기 위한 여행을 떠나며 만나는 이들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대사를 던진다. 이 제안을 받는 것은 해적왕이 되기 위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가 아니라 루피와 정서적 교류를 통해 마음이 통한 이들이다. 말하자면 루피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은 우정, 희생, 헌신의 태도 등 관계적 능력일 때가 많다. FGI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떤 기준 그런 건 없고, 잘하는 사람보다는 우리랑 같이 했을 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였다.” (1차 FGI 참여자, 청년 H)

그러나 이런 만남이 우발적이고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커뮤니티의 구성단계에서도 보았듯 ‘탐색-제안-수용’으로 볼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 확인 되었을 때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동료가 되어 달라’ 혹은 ‘동료가 되자’라는 제안이 이뤄진다.

“책을 같이 오래 봤는데 인문학 쪽에 관심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문화재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인문학 책 쪽에 거부감이 없으신 거 같아서 그거 믿고 한 번 던져봤어요.” (3차 FGI 참여자, 청년 P)

“공통된 키워드 관심사가 노동문제, 여성의 노동문제다. 페미니즘 이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 라 대화를 나누던 친구다. (중략)... 개가 저를 꼬드겨서 둘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중략)... 서로의 비전과 관심사가 맞물려서 합심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 어려운 점이 있긴 하다. 둘 다 방송작가여서 실제 촬영이나 편집을 해보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된다.” (1차 FGI 참여자, 청년 I)

## ② “그리고 보니 여성들이 모였네요”

지원서 분석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청년커뮤니티의 참여자 비중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되는 것이다. 특히 커뮤니티 형성과 운영에 주도성을 가진 대표자 그룹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여성비율이 나타났다는 것은 해석이 필요하다. 그룹인터뷰의 주제로 요즘 커뮤니티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참가자도 여성 그룹이 증가하는 경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의 이유 찾아보는 참가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페미니즘’을 주제로 하거나 ‘여성 1인 가구 모임’ 등 여성 참여자가 많을 조건을 가지고 모인 곳들이 아닌 곳들은 ‘어쩌다보니’ 여성들이 많이 모인 것이지 특별히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질문을 듣고 생각해봤는데, 저희 모임의 대부분도 30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고롭게도 여성 명 중에 1명만 남자다.” (그룹인터뷰 참여자, 청년 N)

“수금하면서도 그러게도 남성분들이 오긴 하지만 저희도 여성 비율이 높다.” (2차 FGI 참여자, 청년 L)

한편 의도성을 가지고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곳들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문제들 (성폭력,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려하거나 사회적 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을 연대의 방식으로 풀어가려는 (1인가구 네트워크) 노력으로 모이고 있었다.

통제되지 않은 변수들이 많아 커뮤니티에 여성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경향을 곧 청년커뮤니티활동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맥락으로 연결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청년들의 ‘커뮤니티-하기’를 사회에서 해소되지 않는 삶의 문제와 욕구들을 ‘함께’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능동적 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해소되지 않은 욕구, 필요는 무엇인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취향은 계급과 차이를 넘게 해주는 계기”

취향은 ‘나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로서 사람들이 결속된 관계 맺기를 선

택하는데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저희도 고양이 하나의 이야기로 사람이 22명이나, 50대 후반 아저씨부터 10대 학생들 까지 모인다. 취향 그 하나 때문에 비슷한 취향, 길 고양이를 돌보고 싶다는거 하나 때문에 모이더라고요” (1차 FGI 참여자, 청년 F)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랑은 다른거 짝아요. 뭔가 되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취향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3차 FGI 참여자, 청년 Q)

비표준화된 삶의 양식,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이지만 아직 모든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나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는 제한적이다. 작은 부분이지만 차이를 통해서 나다움을 드러내는 취향이 주목받게 되는데 제약적 상황 속에서 작은 선택의 자유라도 누리고 그것을 존중 받음으로서 삶의 주체로서의 ‘나’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취향이라는 강력한 계기가 삶의 다른 차이들을 넘어서 연대와 결속을 이루어주는 계기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마. 커뮤니티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쉽게 말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맺기의 방식과 관련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상호작용은 공동체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Bernard, 1951)로 여겨지기도 하며 Kaufman(1956)과 같은 이는 커뮤니티를 ‘상호작용의 장(interactional field)’라 부르기도 했다. 이정민 등(2017)은 구성원의 관계, 상호작용이라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관계의 구성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고 말한다. 그룹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커뮤니티 내 상호작용성과 같은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이 관계는 내가 선택한 것”

자율적 선택이 가능한 사회이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자신을 맞춰 가다보면 선택권이 없다고 느껴지게 된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조직문화는 아직도 단체 행동을 기반으로 공동의 활동을 강요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하는 활동에서 만큼은 그런 압박에서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적으로 청년들은 요즘 커뮤니티의 특징으로 관계 맺기를 위한 술자리나 밥 먹기 등의 비중이 줄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사회의 조직문화도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자율적 모임인 커뮤니티에서의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직장은 내가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공간이지만 커뮤니티에서 만큼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 나갈지 선택권을 내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직장이나 물리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참아줘야 하고,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데 그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해소되는 것도 있고” (1차 FGI 참여자, 청년 J)

“술은 적게, 예전에는 어떤 모임을 가도 그냥 일단 술부터 마셨던 것 같아요” (3차 FGI 참여자, 청년 예저)

“목적성이 있으면, 같은 취향이나 취미를 공유하다보니까 술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차 FGI 참여자, 청년 Q)

일부 청년들은 청년참 반상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게임을 통해 친해지도록 만드는 방식 등 친해짐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에 불만을 가지기도 했다.

“완전 초기, 청년활동에 진입한지 얼마 안 된 팀에게는 되게 좋은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팀을 비롯해서 저희 팀 사람들은 이미 이런걸 너무 많이 했어요.” (3차 FGI 참여자, 청년 P)

물론 게임을 통해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이 강제적 관계 맺기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와 ‘친해져야 한다’,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 자

체가 ‘모든 사람’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될 때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 관계 맺기로서 부담이 된다.

## ② “프로젝트라는 방식을 통해 커뮤니티를 경험”

프로젝트는 주로 일의 영역에서 일의 단위를 이르는 말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년들이 프로젝트의 단위로 커뮤니티를 이루어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심층인터뷰에서 한 인터뷰이는 프로젝트와 커뮤니티, 활동 등이 혼재되어 있어 각각의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실제 느끼는 것은 커뮤니티가 일하는 단위를 프로젝트라 부를 때도 있고, 프로젝트로 모여 하는 활동을 커뮤니티로 부를 때도 있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리뷰를 제공한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어쨌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프로젝트... 이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커뮤니티의 중요성도 같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고 어느 정도 가능성들을 열어 놓았는데 그러다보면 프로젝트성으로 해보면서 맞는 것을 찾고 싶어지고, 프로젝트 진행하려 하다보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 새로운 재미있는 것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깨달아 가는. (중략) 서로 안맞을 것 같은데 이거 했다가 평생 이 사람들이랑 일하는 것 아니야? 이런 무서움들도 있고, 감힐 것 같은 폐쇄적 공간일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경험하면서 아 그냥 20대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과 있다보니 만나고 헤어지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 들만 맞다면.” (익명의 연구 리뷰어)

프로젝트는 내가 뭘 잘하는 지 알아갈 수 있는 수단이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창구이다. 혹시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오고 감이 자연스럽기도 하고 프로젝트는 일정 기간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감을 느끼고 있었다.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르고 경험해 보지 않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도 모르는데 그것의 끝을 알 수 없는 (끝이 없는) 상황을 더 두렵다. 여전히 프로젝트를 하는 관계가 커뮤니티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프로젝트와 같

은 활동을 통해 열린 관계계, 커뮤니티 성을 배워간다는 것에 공감하는 의견이었다.

“(생계를 위한 일을 함께하는 관계도) 그래도 커뮤니티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도 커뮤니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뜻을 가진 분들이 합류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1차 FGI 참여자, 청년 J)

### ③ “온전히 나로서 판단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험”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성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겪은 일들 중에 꼽은 가장 좋은 경험으로 서로 지지해주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었던 경험을 말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지지나 나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은 친밀함의 정도가 높은 아주 잘 아는 관계는 물론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관계 안에서도 일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안타깝다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일이 ‘가족 안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라 말하는 것도 특징이다.

“일터에서는 직장이다 보니까 일이다 보니까 별지 못하는 말이 많은데, 자연인으로서의 내가 나올 수 없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자연인으로서의 나. 내가 생각하는 정말 바보 같은 말도 생각도 다 하는 그런 룰이 있는 것 같다.” (1차 FGI 참가자, 청년 I)

“(처음 만나면 직업, 나이 등 말하지 않는 규칙으로 만난다) 이 규칙들이 좋다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분위기를 확 바꾼 것 같긴 해요. 더 따뜻하고 수용되어지는 누구나 조언이나 비판을 안하니까. 분위기가 예스 앤드가 되거든요. 무엇이든 말하고 느낄 수 있지 이러는 거죠. 더 자유로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안되는 것이 밖에서는 많으니까.” (2차 FGI 참여자, 청년 L)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선 이에게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도록 규칙까지 정해서 만나는 것은 왜 일까.



“내가 이미 아는 내 지인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아예 모르는 새로운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어떨 때 보면 내 지인에게 털어 놓는 것보다 나를 아예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살아가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확실히 니즈가 많다. 가족, 친구에게 못하는 이야기들 새로운 사람에 대한 니즈” (2차 FGI 참여자, 청년 N)

“가족이나 친구는 이미저를 알아요. 먼저 판단을 해버려요. 그들이 나를 아는 상식선에서 내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너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 미리 판단하고 들어 가버리기 때문에” (2차 FGI 참여자, 청년 N)

“저는 뭐랄까 집에서 힐링이 되는게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게 가족에서 이뤄지면 좋은데. 이야기를 했을 때 조언하면 이제 대화 끝. 힐링이 되지 않고 괜히 말했나 싶기도 하고. 오롯이 잘 들어주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공간이 있는데, 집이 그렇게 안되서 친구를 찾게 되는 것 같다.” (2차 FGI 참여자, 청년 L)

“가족도 아군이 아니에요. 항상 비판적이고 조언을 해주려고 하고, 그걸 뭐하냐 돈 된다고 그거하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3차 FGI 참여자, 청년 R)

#### ④ “위계가 없이 만나는 문화”

개인의 정보를 삭제하고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정보들이 위계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위계는 권력관계를 발생시키고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행동과 말에 제약을 가져온다고 참여자들은 느끼고 있었다. 커뮤니티 내에서 위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사실 이제 규칙으로 지키거나 이렇게 하자고 제안해야 지켜지는 규칙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합의되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지키게 되는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보인다.

“명시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암묵적으로 형성된 것들이 있긴 해요. 저희는 아무래도 같이 자라온 친구들이 아니고 사회에서 만나다보니까 누구누구님이나 누구누구생이라고 불러요. 대화 자체는 편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않는 선이 있어요.” (3차 FGI 참여자, 청년 P)

“네, 나이가 많다고 대접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처럼 하는게 저보다 어린 친구가 왔는데, 일적으로는 좀 더 문서 작업이라던가 인문계쪽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잘 되는거예요. 인사과의 선임이다라고 제가 후임이다 해서 배우는데 그 친구가 막 탕비실로 따라오세요 실수하고 이러면 장난도 치고. 재밌게 지내는 것 같아요.” (3차 FGI 참여자, 청년 R)

“무용계는 위계가 너무 썩어서 직속 선후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동되는 위계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공동체를 빨리 결속시키는데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자고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서” (1차 FGI 참여자, 청년 E)

“저희가 학풍 자체가 그런 위계를 나누는 걸 더 이상해 하는 학풍이에요. 만날 때도 선후배 이런게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님 누구씨 존댓말 하다가 서로 말 놓을까요 하면 그때는 아예 다 반말로 쓰고” (2차 FGI 참여자, 청년 O)

### ⑤ “따로 또 같이, 네트워크로 움직이기”

또 상호관계 속 위계 뿐 아니라 아예 커뮤니티 내에 어떤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나 구조를 두지 않으려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대학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은 조직을 두기에는 귀찮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각자의 개성을 살리기에 수직적 관계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내 동아리 등록을 하지 않기도 하며, 개인 또는 그룹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되 함께 도울 일이 생기면 힘을 합치는 네트워크형 모델을 지향했다. 아래 인용되는 커뮤니티 J, O, Q는 모두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으로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저희를 표현하면 느슨하게 연결되고 비 중앙적이고 비 위계적인 고양이를 돌보기 위한 사람들간의 연대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걱정하는게 오프라인 모임을 지양하게 된다. 학교라는 공간에 있어서 학번에 의해서 위계가 생길수도 있고” (1차 FGI 참여자, 청년 J)

“저희 커뮤니티의 어떤 슬로건이 있는데 환경 위기 속 개인의 유연한 실천 네트워크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개인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네트워크의 의미가 환경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에서 공기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저

는 동물권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요. 저는 기후에 대해 활동하고 싶어요. 저는 뭐 개발 반대 이런거에 대해서 활동하고 싶어요 하면 다 모여가지고 함께 활동하는 것 같아요.”

“저희 모임이 18명으로 꽤 많은데 지금 리더가 없다. 어떤 장이라던가 총무 이런 것도 없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모두가 그럴만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리더나 그런걸 정하는게 맞지 않는 것 같다. 다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생각에 있어서도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차 FGI 참여자, 청년 O)

“○○○○은 사회적기업 창업동아리인데, 각 대학마다 있는데 저희 학교에는 5개가 있어요. 저희는 새로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저희는 그 안에 소속되어 있긴한데, 활동별로 움직이고 피드백 회의 할 때만 모이는 정도이다.” (3차 FGI 참여자, 청년 Q)

### 바. 커뮤니티 활동의 목적

커뮤니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단순히 커뮤니티를 구분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것에 머무르는 일이 아니다. 커뮤니티가 문화 예술을 주제로 모인 다, 페미니즘 스터디를 한다는 등 다루는 주제에 관해서는 이미 지원서 분석 등을 통해 보인바 있다. 커뮤니티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기반으로 그 의미와 목적을 확인했다.

#### ① “커뮤니티도 결국 나를 위한 것”

기존에 있는 제도, 커뮤니티가 우선되어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도 ‘나’를 중심으로 내게 의미 있는 방향이 아니라면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이렇듯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인을 정렬시키던 사회는 나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에 접속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여기에는 SNS 등 온라인 네트워크의 발달이 경계 없는 커뮤니티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때문에 주류라는 카테고리에 들지 못하면 활동이 어렵고, 함께 할 사람도 찾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누군가에게 사소하거나 시시해 보이는 것도 어딘가에는 나와 마음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렇기에 누군가에 맞추기 보다는 나의 이야기, 우리가 하기에 재미있는 일을 하

는 것이 가능하고,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이다.

“다른 활동하는 집단을 만나면 다들 마이너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틀에 순응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내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차 FGI 참여자, 청년 G)

“행사 이름을 ○○○ 사람들이라고 지은 것도 남들이 봤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 어떤 취미가 한심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한테 한심한지는 모르는 거니까. 나중에 그게 그 사람에게 큰 직업이나 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1차 FGI 참여자, 청년 H)

## ② “경쟁 없이 함께 성장하기를 꿈꾸기”

커뮤니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한 청년들이 있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커뮤니티라는 경험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장은 자신만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처럼 ‘나만을 위한 성장’은 아니다. 이들이 성장과 함께 언급한 주요한 단어는 ‘혼자보다는 같이’, ‘함께 더불어’라는 표현들이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나를 이해해주고 삶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경쟁 없는 성장을 꿈꾸고 있었다.

“저희 팀을 한 마디로 소개하자면 저희는 그냥 ‘같이 성장하자’. 저희가 팀을 꾸린 이유도 같은 극단에서 만난 막내라인들이다. 근데 저희가 선배들이랑 경력차이도 많이 나고 겹차이가 많아서 막내 라인이 다 비전공자들이어서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혼자서 무언가를 공부해 나가려하니깐 공부량이 너무 방대하고 재미가 없어서 올해 초에 뭐라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작당모이를 해봐야겠다고 일단 만났는데..(중략).. 사실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쓴 글을 이번에 같이 올려주기로 해서 되게 저희 모두 팀원들에게 좋은 커리어가 될 것이다. 아직 초기라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차 FGI 참여자, 청년 K)

“서로 마음 나누고 재밌게 노는 모임이다. 월 1회 행사. 그걸 준비하기 위한 것과 친목모임을 틈틈이. 만나는 건 서로 바쁘지만 월 3-4회는 만나는 것 같다. 우리 커뮤니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차 FGI 참여자, 청년 L)

### ③ “혼자라면 못할 일을 하게 해 주는 곳”

그러나 충분한 자원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의 ‘함께’는 불안하다. 불안의 원인은 여러 차원에서 드러난다.

“근데 저희 3명이서 그때(다른 지원사업을 받은 경험 때) 정말 많이 힘들었다. 저희는 주위에 아는 감독이나 배우도 많이 없고 같이 공연 해줄 사람이 없어서. (중략) 저희는 같이 성장하진데 성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2차 FGI 참여자, 청년 K)

“아, 불안이요? 떠나더라도요. 여기 한 자리에 붙어있지 않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이사도 많이 다니고 외국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한 자리를 잡는 것이 오히려 불안한. 내가 진출하지 못하고 여기 쫓박혀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 예술하는 사람들이 더 심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여기 쫓박혀서 뭐해 그런거에 대한 불안들.” (1차 FGI 참여자, 청년 E)

“같이 있으려고 돈 버는 느낌. 안 그러면 버티기 힘들어지는 친구들이 돈 벌러 판데로 가버려야 하니까” (3차 FGI 참여자, 청년 R)

하지만 청년들은 불안하기에 다시 커뮤니티로 모인다. 함께 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에 대비되어 사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음’의 가능태로 쓰인다. 커뮤니티는 혼자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이다. 그것은 개인에게 성장을 주기도 하지만 함께한 우리의 성취가 되기도 하여 건강하게 삶을 지속해 나가는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

“저한테 커뮤니티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는데

어딘가에는 있구나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속감과 연대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 ‘발견가능성’이 소중한 것 같아요” (1차 FGI 참여자, 청년 J)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였던 것 같다. 전시라는 목적성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절대 혼자서는 못할 경험 그걸 하게 해준 집단이었어요. 저에겐” (2차 FGI 참여자, 청년 N)

“제가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1인 유튜버 처럼 했으면 안했을 텐데 팀원들이 받쳐주잖아요. 이번에 가서 뭐가 좋았고 어떻게 좋았고 ‘같이’ 라는 피드백이 매우 힘이 많이 되요.” (3차 FGI 참여자, 청년 P)

#### ④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

이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는 대부분 비주류, 권력이나 위계, 시장의 논리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던 목소리를 담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수용되지 않는 경험을 통해 체제 내부에 기대하기보다 새로운 자신들의 공간에서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SNS 등 온라인 네트워크의 발달이 경계 없는 커뮤니티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때문에 주류라는 카테고리에 들지 못하면 활동이 어렵고, 함께 할 사람도 찾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누군가에게 사소하거나 시시해 보이는 것도 어딘가에는 나와 마음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렇기에 누군가에 맞추기 보다는 나의 이야기, 우리가 하기에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이다.

“다른 활동하는 집단을 만나면 다들 마이너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틀에 순응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내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차 FGI 참여자, 청년 G)

“일터에서 만났지만 방송계에서 느낀 불만들 한계를 때문에 되게 좀 약간 서로 억눌려 있었  
다면 그 억눌림을 여기서 다 풀자 하지 못했던 이야기 다하고, 하고싶던 아이템 하고, 방송국  
에서는 데스크 보는 사람들이 중년 남성이다 보니까 청년이고 여성인 페미니스트인 우리의  
이야기는 킬 당하는데 킬 당한 우리의 아이템들 우리가 하자 그랬기 때문에 재밌게 좀 할 수  
있는 것 같다.” (1회 FGI 참여자, 청년 I)

### (3) ‘청년커뮤니티’의 특징 정리

그룹인터뷰를 통해본 청년커뮤니티는 내 필요나 상황에 의해 활동의 깊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형태가 선호된다. 원할 때는 접속했다가 필요가 사라지면 떨어져 나가  
기도 한다. 전통적 관계의 결속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  
에게는 ‘커뮤니티-하기’에 사용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두 사람의  
헌신을 요구하는 모습은 적어졌지만 서로의 자원의 조각을 모아 협력하는 일을 체계적  
으로 해나가는 것을 추구한다. (물론 추구하는 바와 현실적 실천에는 간극이 발견되  
기도 한다.) 그리고 협력의 방식은 권위나 위계를 바탕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살피며 나아가는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회는  
힘을 행사하지만 스스로는 힘이 없는 청년들이 서로를 편견 없이, 위계 없이 받아들이  
며 연합하고,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통해 자신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려는 가부장적 경쟁  
사회의 현실에 동조하기를 거부하며 ‘함께’라는 작동을 통해 다른 방식의 생존을 도모  
하고 있다.

아래 표는 청년커뮤니티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연구에서 확인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커뮤니티와의 비교를 한 내용이다. 요소별 특징들을 대조적으  
로 표현했지만 전통적 커뮤니티의 영향이 큰 상황에서 탈-전통적 커뮤니티의 등장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때로는 청년커뮤니티라 할지라도 커뮤니티가 놓인  
상황에 따라 전통공동체의 특징 일부, 탈-전통공동체로서의 특징 일부를 공유하고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분	전통공동체	‘청년커뮤니티’
기반	근거리 기반	근거리 기반 약화(탈-장소적) 과거 보다 광역단위 모임 증가
	선택할 수 없는(귀속적) 사람들과 함께함 :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중요	내가 함께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함 : 공유하는 가치관, 선택의 계기가 중요
상호작용	상호의존적인 긴밀한 관계 추구	필요에 따라 관계의 밀도를 선택적으로 추구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타적 행위 중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개인이 희생이 따르는 것을 경계
	가장,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관계 맺기 방식	분권적, 탈-위계적 관계 맺기 추구
목적	구성원의 생계와 결합된 운명 공동체로서 공동목표 추구	생계 기반과 별개의 활동으로 자아실현 및 성장 욕구 해소를 추구
	사회 공통의 가치를 공동체 단위에서도 함께 추구하여 이뤄나감	사회에서 관심을 덜 받는 비주류적 삶의 방식, 가치를 실현하려 함
기타	생산기반을 소유하거나, 제도 등에 의지해 지속가능성 확보	자본이나 생산수단이 없어 개인적 성장, 집단적 성취가 커뮤니티 유지의 이유가 되지만, 장기적 지속성 확보가 어려움

[표 11] 전통공동체와 청년커뮤니티 비교

## 5. 전문가 검토의견

### (1) 전문가 검토 개요

연구 내용의 종합적인 검증과 내용의 개선을 위해 청년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운영과 관련해 활발히 활동 해 온 전문가 4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서면 면담을 진행했다. 연구진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고, 서면응답을 받았다. 서면으로 설명이 부족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름	소속 / 활동	이름	소속 / 활동
김희정	前 청춘벨딩 센터장	이선애	前 무중력시대 성북 팀장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이사	장재열	좀 놀아본 언니들 대표

[표 12] 전문가 검토 명단

검토를 의뢰한 주요 내용은 1) 앞서 서술한 ‘커뮤니티형성’의 과정 및 ‘커뮤니티활동’과정의 질적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구조적으로 배열한 ‘커뮤니티 작동 요소’라는 표를 제시하고 이 설명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안 받았으며 2)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적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본 장에서는 1)번 질문과 관련한 의견과 반영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2)번 질문에 대한 의견은 제도적 적용방안을 다룬 부분에 서술 되어있다.

## (2) 전문가 검토 내용

주요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별 응답내용은 위 검토 명단 순서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배열하였다.

### 가. 연구에서 인상적인 부분

- 커뮤니티 활동이 (참여자) 본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듬어 가기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 인상 깊음. 기존에 귀속되어 있던 공동체에서 본인의 위치와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험을 한 청년들이 정체성과 밀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속하려는 경향이 큰 것 같다.
- 커뮤니티의 작동(커뮤니티 형성과 진행과정)을 이루는 요소들이 인상 깊음, 형성 초기의 커뮤니티들이 정리된 작동요소를 읽으면 향후 자신들의 (커뮤니티)성장단계가 그려지고 이해할 수 있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 커뮤니티 작동요소의 구성 내용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커뮤니티들의 존재 상태를 매우 잘 분석하고 해석하여 인상적이다. 다만, 일부 요소들의 경우 어떠한 과정

을 통해 도출되었는지 의문스러움.

- (연구 제목의) 작동이라는 단어가 생경하며, 청년커뮤니티 작동이 설명되려면 (청년 커뮤니티가 아닌) 기존 커뮤니티 설명이 비교되면서 독특성이 설명되는 것이 설명력 있을 것 같다. 세대적으로 청년의 현재가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다른 세대와의 차별성이 어떤 연유에서 발생하는지 확인되면 더 좋을 것 같다.

나. 커뮤니티의 작동을 커뮤니티 형성-활동의 과정에 따라 정리하려는 시도에 대한 적절성(전문가 질문지에 연구 중간단계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했다.)

- 커뮤니티 작동을 구성하는 항목이 ‘예시’인지, ‘항목’인지 고민이 되고 바로 인지되지 않아 더 나은 표현이나 분류체계가 없는지 고민됨.
- 커뮤니티 작동을 구분하는 과정이 엄격한 경계가 있는 것 같지 않고, 표현이 애매해 작동 요소라기보다 설명이나 형태에 가까워 보임. 다른 커뮤니티와는 어떠한 이유로 (청년)커뮤니티가 구분되는지 설명되지 않음
- 커뮤니티의 작동이 개인의 니즈를 기반으로 설명되어 그룹으로서의 역동이 잘 설명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 커뮤니티의 되기(만남)의 측면은 다루어지나 해체(안녕)에 대한 측면은 조명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형성과 활동의 분류는 잘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 (3)전문가 검토 내용의 적용

- 기존에 ‘커뮤니티 작동요소’로 정리한 내용의 적절성을 다시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기존에 커뮤니티 형성단계를 ‘커뮤니티-되기’, 커뮤니티 활동을 ‘커뮤니티-하기’로 구분하였던 체계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커뮤니티의 수행적 과정을 ‘커뮤니티-하기’로 통칭하고 그 내용을 ‘커뮤니티 형성’과 ‘커뮤니티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청년커뮤니티가 기존 커뮤니티들과 차별적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연구에서 발견된 특징들을 바탕으로 전통 커뮤니티와 청년 커뮤니티와의 비교를 표로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상호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서로의 특징을 공유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 IV.

## 종합 :

### 연구 시사점 및 제도적 지원 방향

1. 청년커뮤니티 연구 시사점
2. 청년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의 방향제언
3. 연구의 한계

## 1. 청년커뮤니티 연구 시사점

본 연구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왜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며 커뮤니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은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내린 연구의 시사점이다.

### (1) 커뮤니티의 기반 및 자원과 관련한 이슈

#### 가. 돈과 공간 : 청년이 지역에서 커뮤니티로 모이기 어려운 이유

베버(Webber)가 ‘근접성 없는 공동체’개념을 이야기 했듯, 커뮤니티의 기반에서 근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개념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서울에서 커뮤니티를 한다는 것은 서울 전역, 나아가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을 아우르는 장소 성을 의미하고 있을 때가 많았다. 근거리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특정 대학, 혹은 커뮤니티 하우스 등의 거점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였다. 지역 내에 관계망을 가진 동네 친구의 모임은 소수의 모임에 그쳤다. 지역이나 장소는 커뮤니티의 구성 조건보다 이들이 활용하는 자원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정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생존, 더 많은 기회를 위해 항시 이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기반으로 한 마을활동이나 지역 활동은 어렵다. 더구나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위한 많은 가능성을 놓칠 수 있음을 감내해야 한다. 물론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자원을 나누어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를 희생하며 생계와 돌봄의 분업화가 가능한 산업사회의 핵가족과 비교했을 때 효율성은 크게 떨어진다.

이때에 청년커뮤니티 사업이 가진 돈이라는 지원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지원으로서의 돈이 가진 힘에 대한 두 가지 특징적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경제적 보조의 의미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으로서 돈의 의미이다. 특히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과거에 비해 사용 내용에 대한 제약을 줄이고 있어 청년들로서는 보다 다양한 활동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이 주는 또 하나의 영향은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이다. 50만 원이나 100만 원의 돈이 어떤 이들에게는 큰 돈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금액적으로 그리 큰 돈이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이 돈이 커뮤니티 활동의 계기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청년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때 가지는 부담을 덜어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부담으로 해야 했던 일’, ‘돈도 안 되는데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의외로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커뮤니티를 제안한 제안자 혹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 더 크게 가지고 있었다. 재정적 부담이 커뮤니티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까봐 걱정하였던 상황에서 적어도 자부담은 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의 전환이 주는 해방감은 커뮤니티의 지속에 돈이 가진 금전적 가치 이상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사람 : 청년이 커뮤니티로 모이는 주요한 이유

커뮤니티에서 지역성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반면 ‘사람’이 가지는 의미는 확대되고 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가족이나 마을과 같은 전통적 공동체와는 달리 선택적 공동체에서는 ‘누구와’ 이 커뮤니티를 함께 하는가가 주요한 문제이다.

특히 우정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관계의 유형이다. 전통적 공동체에서 가족이 친밀감과 유대의 상징이었다면 현대로 오면서 관계의 친밀성을 대표하는 것은 ‘우정’을 통한 친구관계가 차지하고 있다. 팔(Ray Pahl)과 스펜서(Liz Spencer) (2010)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자리를 대체할 정도의 강력한 우정 관계의 증거들을 발견했고, 때문에 가족에서 ‘친구 같은 관계’가 되기를 지향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논한다. 그들은 이것이 의무적 관계가 주는 공식적 역할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상호작용하는 것에 근거하여 관계의 중요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실제 상호작용에 근거해 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은 가족 뿐 아니라

직장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료’란 사전적으로는 ‘같은 직장이나 같은 부문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청년들은 ‘동료’라는 말을 단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동료는 일만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점차 우정의 관계에 근접하여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하는 활동도 있는 관계에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 다. 성취 : 청년이 커뮤니티를 지속하게 하는 이유

과거의 커뮤니티 활동에서 개인의 성취는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개인의 성취를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과도한 경쟁이 부추긴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의 성취’를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 보이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년기라는 이행적 상황의 특수성을 통해 볼 때 이 시기에 자신의 자원을 들여 선택하는 활동에서 성취는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청년커뮤니티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기록하거나 공개 하고 싶어 하는 욕구,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들을 바탕으로 볼 때 적절한 성취의 경험이 커뮤니티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커뮤니티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은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다양한 성취의 종류이다.

- 내가 생각하던 활동, 주제에 대해 타인이 관심가지고 커뮤니티활동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주었던 경험
- 지원사업에 지원해 선발이 되고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험
- 자신들이 펼친 활동의 결과물을 글, 영상, 웹 등 다양 매체 혹은 극예술의 형태 등으로 대중에게 공개한 경험
- 자신들이 가진 주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그 관심을 작은 변화 (모금을 통해 약자를 지원, 조직이나 분야 내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침)로 이끌어 낸 경험

더불어 이 성취들을 평가할 때 청년들은 이들이 이뤄낸 물리적 결과(성취한 지원금의 규모, 공연에 와준 사람들의 숫자 등)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뤄내기 까지의 과정에 대한 경험을 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성취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취가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협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목표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거나 외부적 목표에 의해 맞춰진 속도에 탈진하지 않고 이를 수 있는지 등 성취의 과정을 재설계 하는 것이다.

## (2) 커뮤니티도 결국 ‘나’를 위한 활동임

전통적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가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은 커뮤니티의 결속을 이루고 커뮤니티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회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회의 존속을 유지하는 운명공동체의 성격을 띠었다. 그 공동체들에서 개인은 드러나지 않는 존재로서 공동체의 우선되는 목표에 동원되는 존재였다. 그러나 요즘의 선택적 커뮤니티활동에서의 커뮤니티-하기의 목적은 커뮤니티의 존속이나 사회구조의 재생산에 맞춰져 있지 않다. 내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 궁극적으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나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내 삶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데 필요한가가 커뮤니티-하기의 목적이 된다.

청년커뮤니티를 이해하는데 있어 커뮤니티-하기가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나’를 중심으로 재배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와 같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인을 배열하는 탑-다운(Top-down)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의견,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모두의 목표를 이루는 것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 가. 내가 선택한 삶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협력

김영과 황정미(2013)는 후기 근대사회에서 청년들의 삶의 경로가 다양화 되고 개인화 되었다고 말하며 정상적이고 표준적 생애경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 탈표준화된 삶의 경로를 스스로 구성하는 이들이 개인의 노력과 일대기 구성을 통해 계속 협상을 해야 하는 삶은 ‘대체로 자원이 부족한 처지에 있다’고 지적한다.

귀촌하는 삶, 비건으로서의 삶, 셰어하우스에서 사는 삶 등 이전에는 없었거나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삶이 방식들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늘어났지만 이러한 삶을 위해서 들여야 하는 물리적 비용과 사회적, 정서적 비용이 크다.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거의 없고, 스스로 선택지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왜 자신이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모이는 방식을 택한다. 부족하지만 서로의 자원을 모아 더 큰 자원을 만들어감과 동시에 그러한 삶의 방식을 스스로 살아내는데 만족하지 않고 외부로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도 열심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방식에 공감하고 참여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소모적 인정투쟁도 줄어나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이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자신의 삶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 나.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탐색적 시간의 확보

아넷은 그가 ‘발현성인기’라고 부른 이행기 청년의 특징으로 ‘정체성을 탐색’, ‘실험/가능성’, ‘불안정성’,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 ‘불명확한 정체감’을 제시했다(아넷, 2000; 안선영 외, 2011에서 재인용). 이 시기는 어떤 시기보다도 ‘나’에 집중하고 다른 제약조건 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시기이지만 동시에 자원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위험부담도 크다.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탐색,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진다. 더불어 근대의 개인화는 탈표준화된 삶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열어주어 개인들이 ‘자아에 대한 고민’을 이행기 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진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사이드프로젝트는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능성에 대한 탐색의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이드프로젝트가 좋은 것은 직장에서의 일처럼 운명을(생계를)걸어 부담스럽게 추진해야하는 위험은 줄이면서 그 과정은 마치 일을 수행하듯 진행되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있다.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활동을 계속 진행해도



좋을지’ 혹은 ‘이 사람들과 이 일을 함께 해도 좋을지’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현대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이나 진로의 변경도 예전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고, 전통적 업종이 아닌 새로운 창직, 삶의 방식을 실험해보고자 하는 수요도 늘어났다. 하지만 생계를 저버리고 그 실험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에 버거워하는 청년들은 서로의 시간, 물질적 자원, 능력을 모아 혼자서는 쉽게 해볼 수 없는 진로와 생계,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탐색적 시도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는 기간을 정해놓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매력의 요소가 있다. 이동성과 여러 삶의 변수가 높은 청년기의 삶에서 무언가를 오래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딘가 오래 머물러 있는 다는 것이 기회 제약의 요소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가 선택적으로 접속했다 끊을 수 없다는 부분이 안전에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프로젝트는 언젠가 끝나는, 끝낼 수 있는 공식적 방식을 허용해 준다는 면에서 안전감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 (3) 현실에 대한 대항문화, 생산적 성격

#### 가. 비주류적 성격

비표준화된 삶의 추구가 늘어나지만 그 삶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은 그 변화를 따라올 만큼 기민하지 않다. 표준화된 삶의 욕구 즉 취업, 결혼, 육아 등에 쏟아지는 재정에 비해 청년들의 삶의 관심, 관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지원은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주류와 비주류를 일차적으로 가르는 계기는 이러한 사회적 지원과 인정의 양적 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나아가 탈-전통공동체는 거대한 집단이 아니라 ‘소소한 생활세계’, ‘체험세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하르트무트 로자 외, 2010) 문화적 계기와 정서적 관계성이 중요한 (김미영, 2015)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개인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계기, 감정을 중시하는 태도는 이 욕구들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모이기보다는 보다 작은 갈래들로

나뉘지려는 방향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 주류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모임들도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문화적 계기로 ‘취향’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취향이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나이나 신분, 성별을 뛰어 넘어 소통하게 해 주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향은 차이를 기반으로 공통성을 추구한다. 즉 취향이 맞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안과 밖을 확실하게 나눔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특질을 만들고 내부적 결속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시장이 제공하는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어떨까. 유료로 제공되는 모임 플랫폼들이 성행하고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이 플랫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시장은 선택지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플랫폼이 선택해 놓은 선택지 자체에 불만을 가지거나, 시장조차도 관심가지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모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시장도 아직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회적으로 소수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자조모임, 인권과 인식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

#### 나. 여성들의 안전한 장소 만들기

연구자들은 지원서의 분석에서 나타난 여성주도의 커뮤니티가 남성 주도의 모임보다 4배 가량 높았던 이유를 찾으려 했다. 특별히 왜 남성보다 여성이 이러한 선택적 공동체를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의 가설로서 근대이전의 공동체의 작동원리인 가부장적 위계구조의 문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성들이 그 구조아래에서 억압받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여성들이 모여 하는 모임이 모두 가부장제에 직접 반대하는 주제로 모이는 것은 아니기에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울리히 벡은 개인화의 양상에서 젠더관계의 변화를 주요하게 꼽으며 근대의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남녀에게 주어지던 성역할로부터의 해방’이 가능해 졌다고 말한

다.<sup>10</sup>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직도 산업사회의 핵가족 즉 남녀의 성별역할에 기반 한 분업화된 가족구조가 표준화된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아 있다. 더불어 사회구조와 일반조직 역시 가부장적 위계, 권위의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개인화 시대에 남녀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억압적인 상황에 놓여있기 쉽다. 그런 의미에서 김혜경(2012)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유예하며 장기적 이행기를 가지지 못하고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재귀속을 택하는 집단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여 구성해 낼 자원과 선택의 폭을 가지지 못한 저학력 여성 계층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른바 ‘취직’이라고 불리는 신전통주의적 재귀속의 방식과는 달리 커뮤니티의 형성이라는 다른 양상의 재귀속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공공지원사업에서 여성 커뮤니티의 참여가 많은 것이 제도적 커뮤니티 혹은 사회제도가 여성들에게 필요한 생존과 안전의 필요를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가정이 힘을 얻는다. 여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탈 가부장적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리뷰어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해석을 입증할 근거의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다. 생산적 성격의 활동 중시

청년들에게 커뮤니티활동이 자신이 선택한 삶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능동적 선택임을 이야기 한 바 있다. 자신의 자원을 들여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서 이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회에서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정서적인 유대와 안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경험을 얻기를 원하고 있었다. 청년들은 기존의 전통적 공

---

10

사람은 지독한 혼란, 2006 올리히 백, 엘리자베트 백-게른하임, 30P

동체와는 달리 함께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산기반을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은 없지만 재화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가치를 생산해 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지속해 나가는 힘을 얻고 있다.

커뮤니티가 가진 가치, 그 활동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에 대한 관점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산이 곧 재화로 측정되지 않더라도 이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관계를 쌓고, 서로의 안전을 추구하고,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 가진 사회적 가치. 나아가 사회에서 쌓기 힘든 경험과 기술을 익히고 서로 복돋아 자신들이 원하는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지하며 나아가는 경험. 그 경험들을 나누기 위해 타인과 소통의 방식을 고민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남기고 싶어 하는 활동들이 모두 현재 청년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산적 활동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2. 청년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의 방향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에 기반 하여 청년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제도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탈-지역적 성격을 반영한 지원설계

현대 커뮤니티의 특징인 탈-지역성이 연구 대상의 커뮤니티들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시대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역과 마을을 기반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단순히 어떤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이 속한 지역의 거주자이거나 혹은 지원기관 장소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 등으로만 제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실제 지역기반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는지, 행정상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일일 뿐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서울 내의 청년 지원기관 간의 협력과 연대를 확대하는 노력은 더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조건을 거주지 기준이 아닌 활동지를 기준 (구성원들

이 중간에서 모이는 지점)으로 하고 자신들이 접근하기 편한 지원기관을 선택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 쪽에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지원기관간의 광역적인 협력이 발휘 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는 본 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청년공간이나 지역 내 타 공간과의 매칭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에 필요한 용도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적절한 네트워크, 장비 등이 지원이 필요함.

## (2) 커뮤니티 형성 이전과 형성 단계에 대한 지원

청년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는 이미 모이고 있는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청년들이 커뮤니티 형성의 계기를 접할 수 있도록 사전 단계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통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가벼운 자리들을 만드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커뮤니티 형성 단계를 살펴보면 정서적 연대, 같은 경험을 했다는 처지의 공유, 비슷한 문제의식 등이 결속을 만들어 내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안전하게’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들이 있다면 관련된 커뮤니티의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개인화 된 사회에서 만남의 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 꽤 큰 자원이 투입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유료 커뮤니티 플랫폼이 성행하는 것은 그러한 자원을 ‘돈’이라는 재화를 투입하여 쉽게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적인 자원이 없는 청년들은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쉽지 않기도 하다. 따라서 완성된 커뮤니티를 이야기하기 전에 ‘만남’이라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는 본 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다.

- 현대 사회처럼 한 개인이 자신의 관계적 안전망을 가지기 힘든 상황에서 형성된 커뮤니티 (관계망을 가진 사람)만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 다만 여러 ‘1인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해본 경험으로 느끼는 것은 ‘커뮤니티 지원’과 ‘1인 지원’ 사업 간의 간극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임. 개인으로 시작해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커뮤니티지원 사업과는 별개의 트랙으로 구조화해야 하는 사업일 수 있음.

### (3) 자조모임 형태의 안전한 교류의 장 지원

이는 앞서 제시한 커뮤니티 형성단계와 연결되는 제안이다. 사회에서 경험과 자원이 적고 위계적으로 낮은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는 제한적이다. 청년커뮤니티가 형성경로로 사회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자조 모임 성격의 속풀이 자리를 거쳐 변화를 위한 실천적 모임으로 변화해 가는 흐름을 읽어 볼 수 있었다.

일부 청년지원기관들이 펼치는 공론장 형식의 행사들이 있지만 너무 공적인 자리로 개인적 경험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이뤄지기 힘들고 대화가 기록되는 등 안전한 공간으로서 대화의 장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대화가 기록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 전제로 안전하게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역할을 제도 영역의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진 청년 활동가,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간접적인 사업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연구에서 확인했던 매우 느슨한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따로 또 같이’ 형태의 커뮤니티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반드시 끈끈한 연결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혹은 온라인상으로 작은 성취가 될 만한 일을 함께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혼자 지내는 것 보다 나은 훌륭한 상호 돌봄의 안전망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이 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다.

-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좋은 가치’를 찾는 여러 명이 모여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의 부정적인 경험을 한 청년 개인이, 그러한 경험을 한 또 다른 청년을 만나고 그것에서 하나의 가치관이나 지향점을 형성하다 보면 목적을 뒤늦게 찾고,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있음. 부정적 경험을 겪은 개인은 고립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커뮤니티 형성 욕구가 있어도 당장 ‘몇 명을 모으는’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형성 이전의 단계에 대한 지원 방향으로 자조적 모임을 지원하고 저 활력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함.
- 청년허브가 7년차를 맞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청년지원이 저 활력 청년들에게는 와 닿지 않거나 너무 먼 것 혹은 ‘그렇게 있는지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저활력 청년들의 서로 돌봄을 지원하는 모델 자체가 희소한 것이 아닌 새로운 모델로서 등장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함.

#### (4) 이행기 청년의 성장과 탐색의 욕구 반영

성장에의 욕구, 진로와 자아에 대한 탐색 시기로서의 의미,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험, 결과물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 등은 본 연구가 전제하고 확인한 이행기 청년들의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이 커뮤니티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자신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기억에 남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물을 생산하고 싶은 욕구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만 하려 하거나, 사회와 같은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겪는 사회의 경험과는 다른 경험으로서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다른 경험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결과를 강조하지 않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혹은 가족과 학교 등의 폐쇄적 커뮤니티만을 경험한 청년들이 처음 주도적으로 열린 구조의 커뮤니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및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청년기에 대한 이해, 커뮤니티를 하는 다양한 니즈를 고려해, 이러한 지원들이 적절히 배치되고 ‘지원-선발-실행-결과발표’의 단선적 구조 외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들을 설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를 과도하게 프로그램화 하여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문턱

을 높이고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을 밝힌다.

- 주제나 형식에 대한 제약이 적고, 문턱이 낮은 커뮤니티사업이기에 다양한 삶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들이 유입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떠한 특정 관점을 통해 특수한 경향성을 담아내려 한다면 그 열린 구조가 가지는 장점에 반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음. 오히려 청년들의 니즈와 제안을 담아내는 커다란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청년들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함.

### (5) 젠더적 관점의 고려

여성들의 커뮤니티 활동 참여가 남성에 비해 많고, 특히 주도적으로 커뮤니티를 제안하고 만드는 대표자로서의 참여 역시 많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경향에 대한 원인으로 여성해방, 선택적 삶의 자유 등 개인화된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삶의 형태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 제도, 과거의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닮아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사회의 조직형태 등을 지목한다. 그 필요를 스스로 채우고 해방적 공간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커뮤니티활동을 활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그 지원 경로로서 유의미한가, 이러한 지원이 자칫 성별을 기준으로 또 다른 칸막이를 만드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성차별적 요소 혹은 억압적 관계 구조에 대항하여 기존 사회 조직이나 커뮤니티가 아닌 새로운 안전한 공간으로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하려는 욕구는 앞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갈 욕구로서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전체 비중에서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 할 것이기에 사업 내에서도 이러한 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6) 과정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사업의 설계

주어진 관계망 안에서의 커뮤니티(가족, 학교)에서 벗어나서 청년기가 되면 스스로 선



택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야 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부재한 청년들은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공공과 사회가 커뮤니티의 결과로 얻어지는 다양한 효과들(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기여, 결과물 혹은 관계망의 확장과 협력이나 연대 같은 가치들 등)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본 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청년들은 커뮤니티 경험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청년들이 만들려 노력하는 이상적인 관계의 맥락 형성의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지원사업 안에 청년들의 커뮤니티 경험을 향상시킬 새로운 지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그러나 아직 청년의 커뮤니티 경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서 성과나 성취 보다 과정을 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활용할 지표나 틀이 부족한 상황임.

###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6개 기관의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합격한 청년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여 청년커뮤니티의 작동에 관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은 각 기관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합격했다는 것은 각 기관의 사업의 방향성에 맞는 커뮤니티가 선별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상이 되는 청년커뮤니티의 활동과 내용이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의 방향과 목적 등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보다 보편적인 청년커뮤니티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집단에 대한 비교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서울’이라는 한정된 도시의 커뮤니티 그 중에서도 공공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커뮤니티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도 한계이다. 서울이 아닌 지역 서울 내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는 자생적 커뮤니티 유료 서비스를 활용하는 커

뮤니티 등 보다 다양한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이 가진 생애 조건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참여자의 성별, 학력, 경제 조건 등의 조건 차이가 커뮤니티 활동에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확인을 하는 것은 탐색적인 기초 연구로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청년의 삶의 맥락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의 과정과 청년들이 가진 삶의 조건이 맞는 맥락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사업에 참가한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중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았고, 이에 따라 연구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도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는 한계도 있었다. 추가적인 연구가 이뤄진다면 다양한 삶의 조건에 따른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 및 욕구 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울리히 벡, 『위험사회』,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 후루이치 노리토시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이연숙 역, 민음사, 2011
- 하르무트 로자, 라스 게르텐 바흐, 헤닝 라옥스, 다비트 슈트레커 『공동체의 이론들』, 곽노완, 한상원 역, 라움, 2010
- 김덕영 『환원근대』, 길, 2014

### 학술지

- Bernard(1951), “Social-Psychological Aspects of Community Study : Some Areas Comparatively Neglected by American Sociologist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1)
- George A, Hillery(1955). Definition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2), 111-123p
- Kaufman (1956) Toward an Interactional Conception of community”, Social Forces, 38(1)
- Pahl Ray & Spencer Liz (2010), Family, Friends and personal communities : changing models-in-the-mind, ISER Working paper Series, No.2010-01, University of Essex
- 곽현근(2012)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동네재생 국가전략과 동네관리. 자치행정, 291호, 24-27p
- 김미영(2015).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여러 형식, 사회와 이론, 제27집, 181-218p
- 김선기(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사회, 24(1), 5-68p

- 김성배(2011). 녹색지역공동체 조성 and 지역활성화 전략, 지방행정, 26-29p
- 김수정(2019). 개인화 시대의 개인주의에 대한 개념적 탐색, 한국언론정보학보, 94, 7-33p
- 김영, 황정미(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한국사회, 14(1), 215-260p
- 김형주, 최정기(2014). 공동체의 경계와 여백에 대한 탐색, 민주주의와 인권, 14(2), 159-191p
- 김혜경, 이순미(2012). 개인화와 위험, 페미니즘 연구, 12(1), 35-72p
- 김혜경(2017).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 비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51(1), 155-198p
- 김홍중(2014)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화 하기, 한국사회학, 48(4). 179-213p
- 김홍중(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179-212p
- 박성연(1996).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특성. 마케팅 연구, 11(1), 19-34p
- 송동욱, 이기형(2017). 불안정한 현실과 대면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삶에 관한 질적인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84, 29-98p
- 심영희(2011). 21세기형 공동체 가족 모델의 모색과 지원방안, 아시아여성연구, 50(2), 7-44p
- 안윤정, 임윤서(2018).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정착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24(2), 273-300p
- 여관현(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도시행정학보, 26(1), 53-87p
- 유수진, 조희선(2019). 청년세대의 주거공동체 경험을 통한 식구되기-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2), 139-155p
- 윤명희(2007). 블로그의 사회적 유형분석. 한국사회학, 41(1), 156-193p
- 이우창(2016). 헬조선 담론의 기원, 사회와 철학, (32), 107-158p
- 이은지, 최현선(2015) 도시 커뮤니티 형성 과정의 탐색. 국토연구 84, 75-94p

- 이정민, 이만형(2017). 대안적 공동체론과 관련 조례의 공동체 개념화, 서울도시연구, 18(2), 177-192p
- 이하준(2014). 율리히 벡의 개인개념과 한국사회. 사회와 철학(28), 67-104p
- 이현재(2015). 성소수자의 인권도시운동과 탈-전통적 연대 개념의 재구성. 범한철학, 78, 353-378p
- 최재훈(2017). 집합행동의 개인화와 사회운동 레퍼토리의 변화, 경제와 사회, 113, 66-99p
- 홍찬숙(2009). 율리히 벡의 위험사회와 하위 정치의 마키아벨리즘. 사회와이론, 213-241p

### 연구보고서

- 김민수, 김병권, 김선기, 신윤정, 임경지(2018). 서울청년정책 평가 및 발전전망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서울시 청년허브
- 김선기, 구승우, 김지수, 정보영, 박경국, 채태준(2016). 청년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동향의 메타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허브
- 서성민, 이진수, 오유진, 김시연, 문유진, 주수정(2016). 청년 세대 다차원적 불평등 연구, 서울시 청년허브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전대욱, 윤현보, 김보미, 최일선, 윤남경(2012).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지역진흥재단

## 서울의 청년커뮤니티 작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및 무중력지대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행 2019년 12월

연구수행 듣는연구소

디자인 더디앤씨 | [www.thednc.co.kr](http://www.thednc.co.kr)

© 2019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이 보고서는 2019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기획연구의 결과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337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층

T. +82 (0)2-6238-6900

F. +82 (0)2-6238-6930

E. [contact@youthhub.kr](mailto:contact@youthhub.kr)